

금수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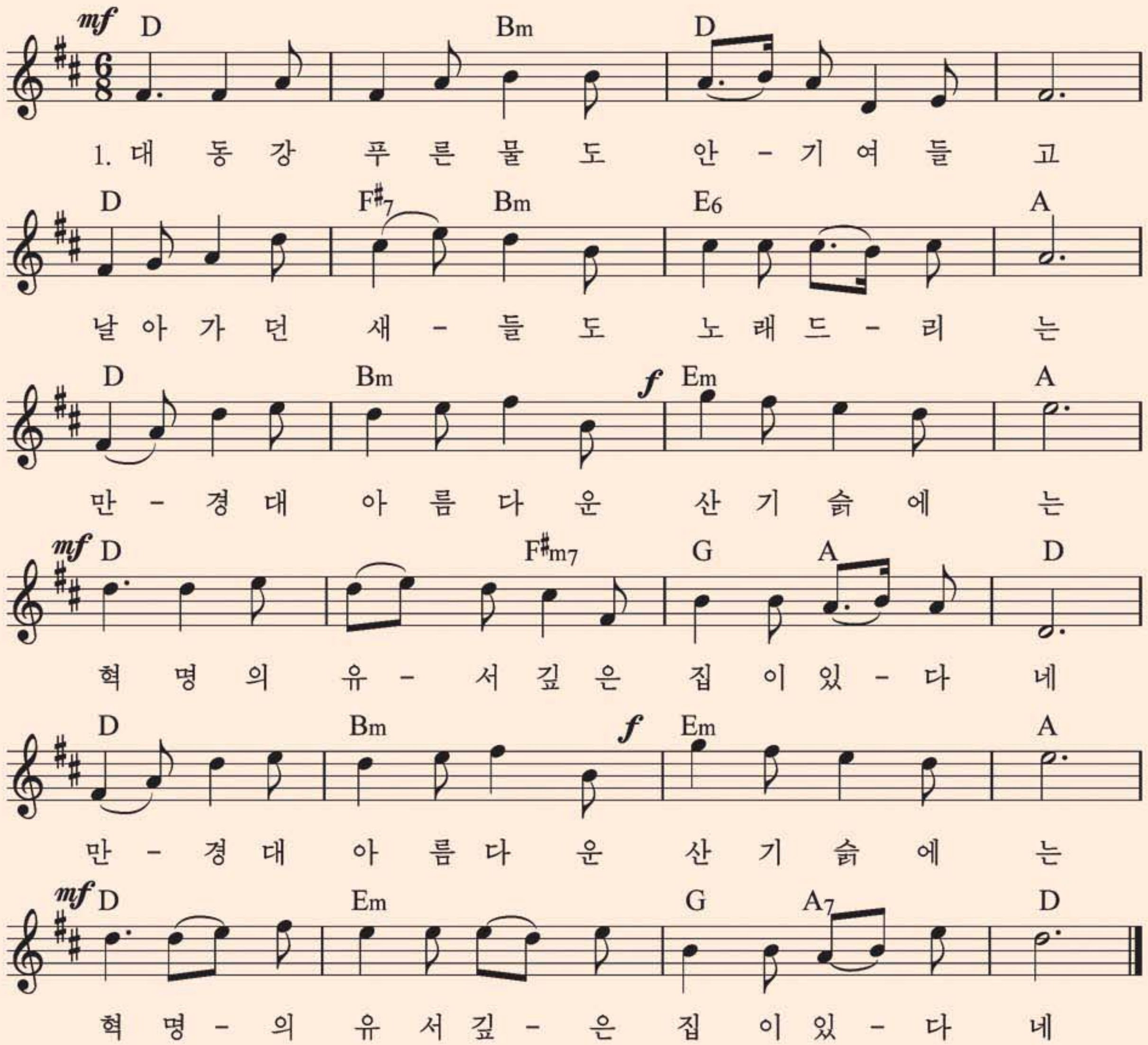
4
주체106(2017)
루계 제332호 월간

 ISSN 1727—9062

만경대의 노래

작사 조령출
작곡 김옥성

보통속도로 명랑하게



2. 대대로 물려 받은 애국의 뜻을
혁명의 붉은 피로 이어 싸우신
김일성대원수님 요람의 고향
그이의 사랑속에 새봄이 왔네
김일성대원수님 요람의 고향
그이의 사랑속에 새봄이 왔네

3. 항일의 이십성상 눈보라속에
어느 한때 이 고장을 잊으셨으랴
나라의 새봄 찾아 싸우신 보람
오늘은 이 땅우에 꽃이 피였네
나라의 새봄 찾아 싸우신 보람
오늘은 이 땅우에 꽃이 피였네

차 례









장강군 향하리의 한 농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8(1969)년 7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강산에 뜨겁게 굽이치는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가없이 펼쳐진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아도, 봄을 맞아 아름답게 피여난 한떨기 꽃송이를 보아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추억으로 가슴이 젖어든다. 그 추억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여 인민과 함께 고난과 행복을 함께 나누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였다.》

이민위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 뜻을 지론으로,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한 길을 걸어오시였다.

그이께 있어서 언제나 인민이 하늘이였다. 그 하늘을 위하여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바쳐오시였

기에 인민들은 그이를 어버이로 모시고 따랐으며 오늘도 그이를 영원한 어버이로 모시고있다.

언제나 인민이 제일이고 인민의 힘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을 시작하시는 첫 시기에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해나가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민을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였다.

하기에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근거지에서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뿌리를 둔 독창적인 정권형태로서의 인민혁명정부가 창설될수 있었고 해방직후 당시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인 토지개혁도 제일먼저 실시될수 있었으며 나라의 형편이 비록 넉넉하지는 못해도 전반적무상치료제와 무료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인민들은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사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질수 있었다.

오늘 인민들이 조국의 북단으로부터 분계연선의 마지막마을에 이르기까지에 뜨겁게 새겨져있는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을 위한 헌신의 발자욱을 다 이으면 내 조국의 지도가 되고 지명사전이 되며 그것을 다 펼치면 내 나라의 새 력사가 되고 행복넘친 인민의 보금자리가 된다고 말하고있는것도 다 수령님의 마음속에 언제나 인민의 아들로서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려는 숭고한 사명감이 꽉 차있었기때문이다.

언제나 인민이 그이의 하늘이였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생을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두지 않으시고 고락을 함께 하여오시였다.

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는것이며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면 백전백승한다는것이 그이께서 한평생 간직해오신 신념이였다.

여기에 인민을 혈육으로 대하고 보살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주체43(1954)년 10월 어느날 평안남도 증산군 이압리를 현지지도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곳에 전쟁때 원쑤들에게 일가친척 30여명을 잃고 빈집에서 혼자 살고있는 한 농민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하여 그의 집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불을 켠 성냥가치가 다 타들어가도록 담배에 불을 붙이지 못하시며 그를 오래동안 위로해주시였다. 수행일군이 떠나실 시간이 훨씬 지났다고 몇번이나 말씀을 올려서야 그이께서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그러시고는 몇걸음 걸으시다가 멈춰서시여 침통한 안색으로 농민을 바라보고 또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갈길이 아무리 바빠도 여기서 하루밤을 지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였다. 그러시고는 손수 병마개를 열고 술을 부어 그에게 권하시면서 이럴 때 술 한잔 마시면 아픈 가슴이 풀릴수 있다고 하시며 그와 함께 밤을 보내시였다.

그때로부터 60년이 더 지난 오늘까지도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가슴을 그리도 뜨겁게 울려주는것은 인민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다 헤아리시고 쓰다듬어주신 어버이의 심정이 너무나도 극진하고 뜨겁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그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그를 말해주는 수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이 전해지고있다.

해방후 새 사회건설을 위한 중대사가 많고많았지만 아이들을 마음껏 공부시키고싶어하던 인민들의 소원부터 풀어주시려고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첫 회의의정으로 연필문제를 토의하도록 하신 이야기, 수십년간 아껴오던 수도중심부의 명당자리에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을 위한 전민교육의 대전당인 인민대학습당을 웅장하게 세워주도록 하신 이야기, 창밖의 눈보라소리를 들으시면 산판에서 일하는 벌목공들을 생각하시고 쏟아지는 소나기에도 비새는 집이 없겠는가 하는 걱정으로 잠못 이루신 이야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69(1980)년 12월 어느날 신포랭동공장(당시)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일군들은 추운 급동실안에 수령님을 모실수 없어 밖에서 공정을 상세히 설명해드리였다. 설명을 주의깊게 들으시던 그이께서는 내가 직접 들어가보아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급동실안으로 들어가시였다. 실내온도가 령하 20℃를 오르내리는 급동실의 벽과 바닥은 얼음버캐로 두텁게 덮이고 안에서는 물고기비린내와 암모니아냄새가 심하게 풍기고있었다. 그이께서는 그런것에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급동실의 종심에까지 들어가시여 물고기랭동블로크를 만져보시며 생산공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나서 랭동화를 실현하였지만 우리에게는 맛있고 영양가높은 물고기 2차가공품을 인민들에게 더 많이 공급해야 할 과업이 남아있다고 교시하시며 공장을 나서시는 길로 신포물고기통졸임공장을 찾으시였다.

그이의 이렇듯 뜨거운 사랑과 헌신속에서 우리 조국은 새날이 밝고 해가 저물군 하였다.

사랑의 력사는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 생겨나 가지가지 감동깊은 이야기들을 무수히 기록하여왔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알려진 사랑의 이야기를 아무리 다 모은다 해도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그토록 뜨거운 어버이사랑에는 비길수 없다.

어버이라는 말은 결코 화려한 언어가 아니다. 력사의 진실한 체험에 뿌리를 둔 이 세상 가장 순결하고도 고결한 우리 인민의 부름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이 무엇으로 위대하고 무엇으로 하여 그처럼 빛났던가를 그이께서 회고록에 남기신 교시에서 다시금 되새겨보게 된다.

《나는 나의 한생이 결코 남달리 특별한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한생이며 인민과 더불어 지나온 한생이였다고 자부하는것으로 만족할뿐이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최유성

공부할 걱정, 치료받을 걱정, 살림집걱정을 모르며 부럼없이 사는 조국인민들







일 화

겨레모두를 한품에 안으시고

새로 태여난 재정항목

주체46(1957)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지도밑에 이해 국가예산초안을 토의하는 내각회의가 있었다.

보고자는 전쟁으로 파괴된 공업과 농업을 추켜세우고 령락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최소한 줄여서 이야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가예산초안의 세부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시다가 한 일군에게 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어느 부문에 넣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망설이며 인차 대답을 못하다가 재정형편이 너무 긴장하여 국가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림시외화계획에 넣으려한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쓰라린 설음과 억눌림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민족의 넋을 찾아 모대기는 해외동포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오래도록 아무 말씀이 없으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나지막하나 힘있는 음성으로 아닙니다, 보내주어야 합니다, 당장 보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합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장내는 갑자기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학금은 한두번 보내주고 그만두어서는 안된다, 일본에 우리 동포가 있고 배워야 할 어린이가 있는 이상 계속 보내주어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림시적인 사업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국가예산에 새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항목을 내오고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바로 이렇게 되여 국가예산에는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동서고금 그 어느 나라 재정금융력사에도 있어본적 없는 새로운 재정항목이 태여나게 되였다.

사랑은 남조선어민들에게도

어느해 7월 조선서해에서 있은 일이다. 하늘을 뒤덮은 먹장구름은 심상치 않은 재난을 예고하고있었다. 하지만 남조선어민들은 가랑잎같은 배들을 끌고 날바다로 나갔다.

그들이 첫 그물도 치기 전에 초속 수십m의 강한 태풍이 산더미같은 파도를 몰아왔다. 순식간에 돛대가 부러지고 배들이 부서졌다. 어민들이 부러진 돛대며 널쪼각을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허우적거리고있을 때였다. 조선인민군 해군경비정들이 수난자들을 향해 파도를 헤가르며 쏜살같이 달려왔다.

조난당한 남조선어민들이 태풍에 밀리워 공화국북반부수역으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그들을 꼭 구원해야 한다고 하시며 긴급명령을 하달하시였던것이다. 생사기로에서 헤매이던 남조선어민들은 이렇게 되여 구사일생으로 구원되였다.

어민들이 모두 구원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며 상한 사람들과 허약자들을 지체없이 병원에 입원시켜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키도록 하시였다. 그들이 모진 천대와 고역에 시달리면서 어느 하루라도 편히 쉬여보았겠는가고 하시며 금강산을 비롯한 명승지들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도록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어민들속에 예순번째 생일을 맞는 로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차려주도록 하시였다. 사랑의 비단옷을 입고 풍성한 생일상에 마주앉은 로인의 주름깊은 얼굴에서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였다. 다른 어민들도 모두 감격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로인에게 시집갈 나이의 딸이 있다는것을 아시고 첫날옷감까지 마련해주시였다.

첫날옷감을 받아안은 로인은 남조선에서 고생하는 안해와 딸의 정상이 떠올라 끝내 오열을 터치고야말았다.

남조선어민들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이토록 뜨거운 사랑은 온 남녘땅 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신 민족의 어버이의 한량없는 은정이였다.

본사기자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은 지경너머에도

오늘 조국의 해외동포들은 우리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 태양민족의 한 성원이라고 긍지높이 자부하고있다.

그들에게 그렇듯 긍지높은 삶을 안겨주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시다. 그이는 해외동포들을 언제나 한집안의 식솔로 여기시고 지경너머 어디에 있건 사랑과 믿음을 다 부어주시며 그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이끌어주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벌써 해외교포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할데 대한 문제를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였으며 조국이 해방된 후에는 재일동포들에게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구현하여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을 무어주시였다. 그리고 나라사정이 어려운 속에서도 지난날에는 나라를 빼앗긴탓으로 할수없이 우리 동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야 했지만 자기 나라가 있고 자기 주권이 있는 오늘에야 무엇때문에 이국땅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고생스럽게 살겠는가, 설사 죽을 나누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모두 함께 모여살자고 하시면서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하여 마침내 재일동포들의 귀국이 실현되는 경이적인 사변이 일어나게 되였다. 그때로 말하면 남조선에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이민》과 《인력수출》로 무려 백수십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해외로 팔려가고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부두가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귀국선을 바라보며 동포들모두가 《조국이 온다.》고 눈물속에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슬하에 둔 자식보다 집떠난 자식을 더 걱정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동포들의 육체적생명을 보호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주체45(1956)년 여름 당시 총련일군들속에서는 일본반동들의 가혹한 탄압으로 하여 일부 성원들이 병마에 시달리고있었다.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체없이 귀중한 보약을 마련하여 그들에게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그때 그이의 숭고한 동포애적사랑과 한량없는 은정이 깃든 불사약을 받아안은 동포들은 격정에 넘쳐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이 사랑의 불사약은 병환으로 쓰러졌던 총련일군들이 자리를 털고일어나게 하였으며 왕성한 패기와 정열에 넘쳐 애국사업에 떨쳐나서게 하였다.

지금은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는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도 참으로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다.

전후 빈터우에서 말그대로 단돈 한푼도 쪼개써야 했던 주체46(1957)년 1월 어느날 평양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지도밑에 이해의 국가예산초안을 토의하는 회의가 열리였다. 회의주석단에 앉으신 그이께서는 바람세찬 이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자녀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오래도록 말씀이 없으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이것은 우리의 민족적의무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것은 한두번 보내주고 그만둘 일이 아니라고, 일본에 우리 동포가 있고 배워야 할 어린이가 있는 이상 계속 보내주어야 한다시며 림시적인 사업으로가 아니라 국가예산에 새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항목을 내오고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이것은 민족을 지켜나가는 애국사업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국땅에서 동포들이 조국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특히 조국에 온 동

포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정과 열을 다해가시였다.

언제인가 현지지도의 길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이 조국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외에서 고생하다가 온 동무들인데 아무리 바빠도 자신께서 가서 만나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차를 즉시 평양으로 돌리도록 하시였다.

다음날 차안에서 한밤을 꼬박 지새우시며 머나먼 길을 달려오신 그이의 피로하신 모습을 보며 동포들은 《수령님!》 하고 웨치고는 그만 목이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러는 그들을 한품에 안으신 그이께서는 오히려 동포들의 건강을 념려해주시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뜻깊은 연회도 마련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해외동포들에게 기울이신 사랑은 재일동포들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로씨야에서 살고있는 정일심동포와 그 자녀들에게 뜻깊은 조선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들이 조국에 올 때마다 꼭꼭 만나주시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재미동포 손원태부부와 문명자 그리고 당시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이였던 강일부부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양영동 등 조국에 오는 수많은 동포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으며 앞으로도 조국을 위한 애국사업에 한생을 바쳐가도록 하여주시였다. 해외동포들을 한품에 안아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그 품이 있어 지난날 반공의 길을 걸었던 최덕신, 최홍희도 통일애국의 길을 걸을수 있었다.

진정 몸은 비록 지경너머에 있어도 조선사람이라면 그들모두를 한품에 안아 참다운 삶을 누리도록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품은 하늘과 땅, 바다를 합쳐도 비기지 못할 태양의 품이였다. 하기에 해외동포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이라고, 태양민족의 한 성원이라고 소리높이 자랑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강경수

흠모의 마음어린 꽃축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그리는 조국의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그것은 해마다 조국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는 **김일성**화축전 하나만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축전은 말그대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조국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심과 그리움이 불멸의 꽃 **김일성**화에 어리여 물결치는 대정치축전이다. 축전장에 펼쳐지는 수많은 **김일성**화들은 그대로 태양을 칭송하는 열화의 꽃바다인듯싶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김일성**화는 주체54(1965)년 4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하시였을 때 이 나라 대통령 수카르노가 세계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아름답고 진귀한 꽃을 《**김일성**화》로 명명하고 보여드린 꽃이다.

일찌기 지난 세기 60년대 수카르노가 위대한 수령님께 완전히 매혹되여 그이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화를 세상에 내놓은것처럼 참으로 그이는 조선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위인이시며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태양이시다. 하기에 그이를 흠모하는 **김일성**화축전이 그렇듯 열렬하고 황홀하게 펼쳐지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제1차 **김일성**화축전이 진행되던 주체88(1999)년 4월 당시는 우리 조국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절세의 위인에 대한 조국의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은 결코 막을수 없었다. 하여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처음으로 진행하는 **김일성**화축전이였지만 성대히 개막하기 위해 어려운 속에서도 각곳에 **김일성**화재배온실을 수많이 건설하였고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최상으로 보장하며 불멸의 꽃 재배를 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그들속에는 조국의 평범한 사람들인 평양시 보통강구역의 리상미와 자강도에서 살고있는 리송희부부도 있었다.

리상미는 이역땅에서 살던 자기를 조국의 품에 안아 행복한 삶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덕에 보답할 일념으로 가정에서 불멸의 꽃을 피웠고 리송희부부 역시 추운 겨울이면 방안에 박막을 치고 불돌로 온도를 보장하면서 꽃을 피웠다. 조국인민들은 이렇게 피워낸 **김일성**화를 가지고 축전에 참가하였다.

해마다 진행되는 불멸의 꽃축전때마다 아름다운 꽃과 함께 전시대를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불멸의 꽃 특별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고있는 조선인민군 군부대들과 국가계획위원회, 금속공업성 등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비롯하여 나라의 천만군민이 축전에 뜨거운 지성을 다 바쳐가고있다. 뿐만아니라 각 도, 시, 군들마다에서도 자기들의 특성에 맞게 **김일성**화전시회와 **김일성**화온실참관사업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절세의 위인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자기들의 진정을 펼쳐보이고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는 해마다 자기들의 충정의 마음이 깃든 태양의 꽃과 함께 훌륭한 장식식물로 전시대를 펼쳐 축전을 더욱 뜻깊게 장식하였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과 해외동포들도 자기들의 마음이 깃든 **김일성**화들을 수많이 전시하였다. 이와 함께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과 캄보쟈대사관 등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당 나라 령도자들을 접견해주시는 사진을 정중히 모시고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정성껏 전시하여 절세의 위인에 대한 자기들의 경모의 마음을 표시하였다.

하기에 위인칭송의 꽃물결을 펼쳐놓은 **김일성**화축전장을 찾은 수많은 외국의 벗들은 저저마다 격정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꾸바대사관 무관 미겔 안헬 갈라발리엔떼는 자기 수령에 대한 조선인민의 열렬한 마음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고 하면서 태양의 꽃 **김일성**화가 영원히 만발하듯이 **김일성**화축전도 영원할것이라고 하였고 중국의 기술자 진옥진은 관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축전장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김일성**대원수님을 그리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심을 알수 있게 한다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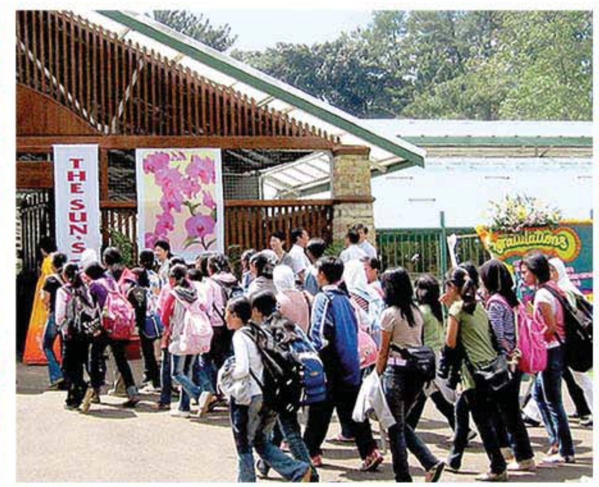
해마다 태양절을 맞으며 수도 평양에서는 **김일성**화축전이 성대히 진행된다.



태양절을 맞으며 길림에서 진행된 **김일성**화전시장을 찾은 재중동포들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식물원에서 진행된 **김일성**화전시회









만경대고향집을 찾는 각계층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자주적신념의 강자들로 키우시여

우리 조국의 력사는 자주의 한길로 걸어온 주체의 력사이다.

조국은 인민의 운명개척과 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 자기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독자성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을 일관한 로선으로 틀어쥐고 자랑찬 승리의 한길을 걸어왔다.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민족자존의 정신, 자력갱생의 힘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부강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여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투철한 정치신념, 일관한 령도원칙이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50년대 미국에 의한 전쟁으로 조국은 령상태였다. 한토막의 강재, 한g의 세멘트, 한W의 전기도 귀하던 그처럼 엄혹한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합경제를 운운하며 쎄브에 들것을 강요하는 대국주의자들의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시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고수하시였다. 그때 그이께서 믿으신것은 인민이였다. 인민들의 자주적신념과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할 결심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7(1958)년 10월 당시의 기양(강서)에 있는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시였다.

로동자, 기술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자면 뜨락또르가 적어도 3만 5 000대는 필요하다, 그것을 사오려면 한해에 3 500대씩 들여온다 해도 10년세월은 걸릴것이며 그동안 처음에 사온것이 마멸되는것을 고려할 때 10년이 지난 후에도 수입은 계속해야 한다, 그러니 수입에 의존해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수 없고 누가 그렇게 주려고도 하지 않으니 제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남을 쳐다보지 말고 대담하게 자체의 힘으로 뜨락또르를 생산하자고 호소하시였다.

뒤이어 덕천의 자동차수리기지를 찾으시여서도 그이께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자동차를 우리라고 왜 못 만들겠는가, 항일유격대원들이 야장간에서 맨주먹으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원쑤들을 족치던 그 정신으로 투쟁하면 자동차도 우리의 손으로 만들수 있다고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남의 도움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만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기양과 덕천로동계급의 심장을 달구었다. 그러나 경험도 기술도 설계도면 한장도 없는 상태에서 뜨락또르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또 한차례의 뜨락또르시운전에서 실패하였을 때 한 로동자는 동무들, 열백번 다시 깎고 백천번을 뜯었다 맞추는 한이 있어도 우리 힘으로 끝까지 해내자고 사람들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호소에 로동자들은 또다시 망치와 스파나를 틀어쥐고 일떠섰다. 피대를 손으로 당겨 기계를 돌리는 때가 많았고 부속품연마는 새끼를 뭉그려쥐고 해냈다.

그 나날 기양의 로동계급은 자주적신념의 강자들로 성장하였고 뜨락또르의 탄생이라는 기적을 불러왔다. 뜨락또르를 만드는 나라가 당시 10여개밖에 안되던 때 맨주먹뿐인 조선이 단 35일만에 뜨락또르생산국대렬에 들어선것이였다. 얼마 후에는 덕천로동계급이 40일이라는 기간에 《승리-58》형자동차 제1호를 만들어냈다.

기양과 덕천의 로동계급만이 아니였다. 인민은 사대주의와 수입병 등을 물리치면서 이전같으면 상상도 못할 기적을 창조하였다.

자동차, 뜨락또르, 불도젤, 양수기, 굴착기, 자동차기중기, 전기기관차…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시종일관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시였고 그 나날 인민들을 남에게 굴종하지 않고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는 자주적신념의 강자들로 키우시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자주적신념의 강자들로 키우시였기에 조국은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 련이은 자연재해, 수십년간에 걸치는 적대세력의 악랄하고 끈질긴 제재와 봉쇄에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승리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인민은 자주적신념을 생명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 그것을 만대에 이어나가며 조국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진룡진

평범한 상점에 깃든 가슴뜨거운 이야기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사랑의 발자취는 조국땅 어디에나 뜨겁게 어려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제가 점장으로 일하고있는 평범한 대동문식료품상점에만도 무려 6차례나 찾아오시여 우리 상업부문 일군들이 인민들에 대한 봉사를 더 잘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주체56(1967)년 12월이였습니다. 이미 2차례나 우리 상점에 찾아오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또다시 우리 상점을 찾아주시였습니다. 그때 그이를 뵈옵게 된 판매원들과 식료품을 사려왔던 주민들은 너무도 뜻밖이여서 제대로 인사조차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상품공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습니다.

고기매대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산 닭을 팔아주고 있는데 대해서 료해하시고 그러면 인민들이 불편해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닭공장들에서 닭을 잡아 인민들에게 공급해주도록 그 조치까지 취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고기통졸임을 보시고서는 그 크기도 정해주시고 려행자들이나 야영생들의 요구에 맞게 많이 생산보장해주도록 하시였으며 전반적인 식료품의 가격을 낮출데 대한 문제 등 식료품공급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점을 찾아주시였습니다.

주체62(1973)년 10월 어느날 이른아침이였습니다.

이날 첫 손님이 되시여 상점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당과류매대에 쌓인 과자를 보시고 판매원에게 하루에 얼마나 팔리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주민세대들에 공급제(그때에는 공급제를 실시하고있었다.)로 판매된다는 판매원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공급수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자고 하시였습니다.

그때 공급수첩은 주민세대별로 되여있었는데 식구수에 따라 4명인 경우에는 한달에 당과류를 2번, 그 이상일 때에는 3번 공급받을수 있게 정해져있었습니다.

공급수첩의 리용정형을 구체적으로 들어주시고 판매원에게 주민들이 좋아하는가를 물으신 그이께서는 좋아한다는 대답을 들으시자 왜 좋아하는가고 다시 물으시였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때나 와도 마음대로 살수 있어 좋아한다고 말씀을 올리자 그이께서는 공급수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가고 또다시 물으시였습니다.

다시 공급수첩을 만들어준다는 판매원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시는듯 다음매대로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매대의 봉사사업을 지도해주신 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다시 당과류매대로 오시였습니다. 한동안 매대에 진렬되여있는 당과류들을 일별해보시던 그이께서는 아무래도 과자를 공급제로 판매하는것은 잘한것 같지 않다고, 지방사람들이 와도 다 팔아줄수 있도록 과자생산을 많이 해야 하겠다고 하시며 해당 일군들에게 그 대책적인 문제를 밝혀주시며 과자도 더 맛있게 만들고 포장도 곱게 잘하도록 강조하시였습니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상점의 여러 매대들을 돌아보신 후 식료품포장용기의 크기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시고 오리고기의 영양가를 분석해보고 공급할데 대해서도 이르시였습니다. 그리고 인민들이 닭고기와 닭알값이 비싸다고 하지 않는가를 료해하시였으며 인민들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식료품상점들에 랭동설비를 다 갖추어놓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령도자도 많지만 진정 우리 수령님처럼 온 나라 대가정의 친어버이가 되시여 자그마한 식료품상점에까지 찾아오시여 그렇듯 인민을 위한 뜨거운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는 그런 위대한 인민의 령도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우리 상점에 남기신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사랑의 발자취를 언제나 심장에 새기고 그이께서 바라시던대로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참다운 봉사자로 더 잘 준비해나가겠다는 것을 다시금 결의다지게 됩니다.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식료품상점 점장 박정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조선혁명군

(전호에서 계속)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때 삼촌의 소행을 두고 아주 민망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하루는 집에 들어앉아 삼촌에게 남길 장문의 편지를 썼다. 정의감이 제일 강하다고 하는 중학시절이여서 도리에 어긋나는것을 보면 웃사람이고 뭐고 참지 못하였다. 그 편지를 삼촌의 베개밑에 밀어넣고 길림으로 떠났다.

어머니는 그때 내가 편지로 삼촌을 비판하는데 대해서 매우 못마땅해하였다.

《삼촌이 지금은 저렇게 어데도 마음을 의탁하지 못하고 구름처럼 떠돌아다니지만 때가 되면 제 곬에 들어서느니라. 아무렴, 너의 삼촌이 근본이야 잊겠니. 실컷 돌아다니다가 싫증나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리. 그러니 비판이고 뭐고 다 그만두어라. 조카가 삼촌을 타이르다니.》

어머니는 이런 말로 나를 설복하였다. 참으로 우리 어머니다운 사고방식이였다.

그래도 나는 기어이 편지를 남기였다.

한해후 길림육문중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이 되여 무송에 돌아와보니 형권삼촌은 놀랍게도 안착된 생활을 하고있었다. 어머니의 예언이 맞아떨어진셈이였다. 삼촌이 내가 써두고간 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밖에 내지 않았지만 나는 그 편지가 삼촌에게 적지 않은 자극을 주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해 겨울에 삼촌은 백산청년동맹에 가입하였다.

우리가 무송을 떠난 후 삼촌은 백산청년동맹을 확대하는 사업에 깊이 빠져들고말았다. 이듬해에는 동무들의 보증으로 공청에도 가맹하였다. 이렇게 되여 삼촌은 혁명대오에 들어서게 되였는데 1928년부터는 공청의 지시를 받아가며 무송, 장백, 림강, 안도지방의 백산청년동맹사업을 지도하였다.

이웃들이 신문을 보고 풍산땅에서 왜놈순사부장을 쏴죽인 사건이 터졌다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만경대고향집에서도 형권삼촌이 체포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이거 또 제 형이 그러더니 동생도 일본놈을 쏴죽이는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지 하긴 잘한다.》고 하였다.

세월이 얼마간 흐른 뒤에야 나는 풍산땅에서 국내공작소조가 벌린 활동전모에 대한 소식을 입수할수 있었다.

압록강을 건는 소조원들은 단천쪽으로 나가다가 1930년 8월 14일 풍산 파발리부근의 황수원들쭉밭에서 잠시 지체하였는데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악질경관 《오빠시》순사부장(본명-마쯔야마)의 의심을 받게 되였다. 그놈은 1919년부터 풍산지방에 와서 조선사람들의 수족을 얽어맨 악질경관이였다. 그래서 그 고장 사람들은 놈에게 《오빠시》라는 별명을 붙이였다. 《오빠시》에 대한 이 고장 인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았다.

소조원들이 주재소앞을 지나갈 때 《오빠시》는 일행을 주재소로 불러들이였다.

형권삼촌은 주재소에 들어가자마자 그놈을 단호하게 처단해버린 다음 인민들앞에서 공개적인 반일연설을 하였다. 그날 수십명의 군중이 형권삼촌의 연설을 들었다. 비전향장기수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전 인민군종군기자 리인모도 그때 파발리에서 그 연설을 들었다고 한다.

소조원들은 적들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농민폭동의 불길이 일어났던 지역들에 접근하려고 시도하였다.

우리는 그 당시 단천농민폭동을 매우 중시하였다. 폭동이 휩쓴 지역들에는 반드시 대중운동의 지도자들이 있기마련이고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되고 동원된 혁명적군중의 조직된 대부대가 있기마련이였다. 적이 폭동지역에서 주동분자들을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였다면 우리는 폭동군중속에서 왕청의 오중화, 룡정의 김준, 온성의 전장원과 같은 핵심들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그런 핵심들과 련계를 가지고 좋은 영향을 주면 국내혁명투쟁을 앙양시킬수 있는 지반을 닦을수 있었다. 단천지구를 개척하는데 성공하면 그 지방을 거쳐 성진, 길주, 청진방면으로도 뻗칠수 있었고 함흥, 흥남, 원산을 거쳐 평양으로도 진출할수 있었다.

우리가 형권삼촌이 인솔하는 국내공작조에 단천농민폭동의 주인공들을 찾아가라는 과업을 준것은 그때문이였다.

파발리에서 총소리를 내고 떠난 무장소조일행은 봉오골어귀에서 풍산경찰서 사법계 주임이 탄 승합차를 억류하고 그자의 무장을 해제한 다음 주임과 그밖의 승객들에게 반일선전을 하였으며 련이어 리원군 문앙리일대에 진출하여 배덕골과 대바위골을 비롯한 여러 지점에서 숯구이로동자들을 상대로 정치사업을 하였다. 어려운 조건이였으나 투쟁은 항상 적극적이였다.

무장소조는 그후 북청방면으로 진출하다가 대오를 두개 조로 편성하였다. 형권삼촌과 정웅이 한조가 되고 최효일과 박차석이 한조가 되였다. 두조는 홍원읍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출하였다.

형권삼촌은 정웅과 함께 9월초 적수색대가 도사리고있는 북청군 대덕산의 광제사를 습격하고 홍원, 경포방향으로 진출하다가 절부암부근에서 적들과 조우하여 전진경찰관주재소 소장을 사살하였다.

삼촌은 그날로 홍원읍에 들어가 집결장소인 최진용이네 집에 찾아갔다.

최진용이라고 하면 형권삼촌뿐아니라 나도 잘 알고있는 독립군관계자였다. 그가 무송에서 안송총관소의 총관으로 일할 때 우리 집에도 자주 드나들었다. 그는 원래 조선에서 면장질을 할 때 돈을 떼먹고 그것이 탄로되여 인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자 동북으로 도주해와서 정의부를 따라다니였다. 한때는 우리 집에 아주 눌러앉아 어머니가 지어주는 밥을 몇달동안 얻어먹은 일도 있었다. 최진용은 일제가 만주로 쳐들어올 기미가 보이자 이제는 나이가 있어 독립군시중을 하기가 힘에 부치다고 하면서 무송을 떠났다. 그때 그는 자그마한 과수원이나 하나 장만해놓고 깨끗하게 여생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홍원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나가자마자 일제의 밀정으로 되였다.

형권삼촌이 그런 사실을 알수 없었다. 최진용은 적의 경계가 심하다는 구실로 삼촌을 뜨락의 구석진 곳에 숨겨놓고 경찰서에 달려가 만주에서 나온 무장단이 자기 집에 있다고 밀고하였다.

삼촌이 경찰서에 끌려가니 최효일도 벌써 거기에 와있었다. 최효일을 밀고한것도 물론 최진용이였다.

삼촌은 그때에야 최진용이 일제의 주구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최진용의 변절은 너무나도 뜻밖이였고 돌발적인것이였다. 하루 세끼씩 몇달을 두고 더운밥을 해서 상우에 반주까지 놓아 푸짐하게 대접해주던 성주 어머니의 은혜를 백골이 되여서도 잊지 않겠느라고 념불처럼 외우던 그 인간이 그처럼 더러운 배신의 길을 걸을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래서 나도 최진용이 삼촌을 밀고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동안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도 사람을 믿는것은 좋지만 환상을 가지고 대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환상이란 비과학적인것이기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뛰여난 천리혜안을 가진 사람도 수습하기 어려운 실수를 범할수 있다.

적의 포위망에서 벗어난것은 정웅 한사람뿐이였다. 정웅은 소조가 국내로 나갈 때 삼촌이 길안내자로 인입한 사람이였다. 고향이 리원인 그는 동해안일대의 지리를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도 후에 춘천에서 밀정의 고발로 체포되였다.

(다음호에 계속)

심장으로 따르는분

현시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제일 알고싶어한다. 어떻게 되여 그분을 조선인민이 그토록 짧은 기간에 한마음다해 따르고있는지.

그것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이는 조국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같으신 인민의 어버이,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기때문이다.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였던 위대한 수령님들과 같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국가정치활동에서 철칙으로 삼으신것이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그것은 그대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으로 되여 정치에 구현되고있다.

인민과 한치의 간격도 두지 않으시는 그이께서는 아이들과 로인들, 근로자들과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찾아가고 계신다.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의 생활형편부터 먼저 알아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는가 하면 로동현장에 가시여서는 생산장성의 지름길도 가르쳐주시고 육아원, 애육원에 가시여서는 원아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정을 다 부어주시며 새로 건설한 양로원에 가시여서는 로인들의 건강을 념려하여 수경온실과 터발까지 마련해주도록 하신 그이이시다.

지금도 조국인민은 그이께서 몇해전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연설을 잊지 못해한다.

력사의 돌풍속에서 우리 당이 믿은것은 오직 위대한 인민뿐이였고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였다시며 나아갈 침로를 정할 때마다, 준엄한 난국에 부닥칠 때마다 인민을 먼저 찾고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였고 인민의 진정에서 무궁무진한 힘을 얻군 하였다고 하신 그이의 연설은 온 나라 인민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이런 불같은 인민에 대한 믿음, 인민에 대한 사랑의 열과 정을 지니신분이시기에 그이께서는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하고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시며 인민을 위해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한다는 멸사복무의 정신으로 시련을 맞받아나가시며 세기적인 기적을 이룩하시였다.

2년전 라선에서의 큰물피해때에도 그러하였지만 지난해 조국의 북부지역에서 처음보는 대재앙을 당하였을 때에도 그이께서는 사랑하는 인민들이 한지에 나앉았다고,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고 하시면서 당시 한창 진행중이던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정하시고 복구전투를 위한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하여 불과 60여일만에 피해지역에는 수많은 살림집과 새 거리, 새 마을이 일떠서게 되고 피해지역 인민들이 한날한시에 새 집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펴게 되였다.

그렇게 인민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지만 그이께서는 주체106(2017)년 신년사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하시며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으시였다.

이렇듯 인민과 혈맥을 하나로 잇고 심장의 박동을 맞추시며 인민을 위해 자신을 열정적으로 불태우시기에 인민은 그이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로 칭송하며 다함없는 한마음으로, 심장으로 따르는것이다.

하기에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은 《조선인민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오직 심장의 가리킴으로 저마다 원수님 가까이로 가고싶어하고 그이와 함께 있는것이 너무도 행복하여 격정의 눈물을 흘리는것이며 떨어질 때면 차디찬 바다물속에도 서슴없이 뛰여들며 목메여 그이를 따르고있다. 이것은 이름있는 연출가도 재현할수 없고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참모습이다. **김정은**각하는 이 세상 그 어느 정치가도 펼칠수 없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인류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오늘의 태양이시다.》고 자기 심정을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그렇듯 위대한분이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조국의 천만군민은 그이를 이미 주체101(2012)년 4월 11일에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4월 13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던것이다.

본사기자 최기철

한평생 잊지 못해하신 모습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한평생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고비마다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으며 그려보신 모습이 있다. 그분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의 어머님이신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녀사이시다.

갓 창건된 반일인민유격대[주체21(1932). 4. 25. 창건]가 남만원정을 준비하고있던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랑하는 어머님과 동생들이 살고있는 소사하 토기점골로 향하시였다.

중환에 계시는 어머님과 어린 동생들이 걱정되여 가지고떠나신 좁쌀 한말이 그이의 어깨를 아프게 파고들었지만 어머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울이신 사랑에 비하면 오히려 솜털같이 가볍다고 생각되신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 삽짝문을 열고 뜨락에 들어설듯말듯하는데 방문이 급하게 열리였다.

수령님께서는 문설주에 기대앉아 웃고계시는 강반석녀사앞으로 총총히 다가가며 《어머니!》하고 소리쳐부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날 밤 어머님과 함께 자정이 넘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강반석녀사께서 중태에 빠진 자신의 병을 숨기고있다는것을 직감하게 되였으며 그로 하여 남모르는 눈물을 삼키시였다.

이틀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대로 떠나기 위해 집문밖에서 신발끈을 매고계실 때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남자의 주머니에는 정 급할 때 쓸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돈 20원을 그이의 손에 쥐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정작 돈을 받아들었지만 그 돈 20원에 얼마나 큰 어머님의 로고가 깃들어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기에 손이 떨려 주머니에 넣지 못하고 어떻게 할바를 몰라 망설이시였다. 마치 그 돈의 무게때문인듯 몸의 균형을 잃기나 한것처럼 비척거리면서 토방밑에 내려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님과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걸음을 내짚으시였지만 동구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돈 20원을 그대로 손에 쥔채 집둘레를 돌기 시작하시였다.

내가 이 마당에 다시 들어서게 되는 날은 언제쯤 될가? 과연 내가 지금 승산이 내다보이는 길을 가려고 하는가? 내가 가는 앞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있을것인가? 그사이 어머니의 병이 호전될 가망은 있을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런 생각에 잠겨 집둘레를 속절없이 돌고계실 때 방문이 열리였다.

《상기두 무엇이 걱정돼서 그렇게 떠나지 못하구 우물쭈물 하느냐? 나라를 찾겠다구 결심품구 나선 사람이 그렇게도 마음이 여리고 집걱정이 많아서야 어떻게 대사를 치르겠니.》

강반석녀사께서는 집안일을 걱정하기 전에 빼앗긴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준절하게 꾸짖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아들로서 그처럼 의에 불타고 열로 빛나는 강직하고 숭고한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시였으며 그런 훌륭한 어머니, 고마운 어머니를 모시고있다는 자랑으로 하여 행복감을 느끼시였다.

모자를 벗고 깊숙이 머리숙여 어머님께 인사를 올리신 수령님께서는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마을앞에 놓인 나무다리를 건느고나서 고개를 돌리신 수령님의 안광에 멀리 어머님의 모습이 비쳐들었다. 흰옷을 입은 강반석녀사께서는 문설주를 짚고 멀어져가는 아드님을 지켜보고계시였다. 그것이 수령님의 눈에 비쳐든 어머니의 마지막모습이였다.

그날의 위대한 수령님과 강반석녀사의 작별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십수백번 체험하게 되는 그런 범상한 작별이 아니라 한생을 두고 가슴아픈 추억을 남겨놓은 영리별이였다.

몇달이 지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였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지막작별의 순간에 더 따뜻한 말을 해드리지 못한 회한의 감정에 잠기지 않을수 없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소한 반일인민유격대의 대오를 이끌고 소사하등판을 떠난 그때로부터 전우들과 함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혈전의 길, 혹한의 길, 기아의 길을 걸어올 때에도 그후 사회주의기치를 들고 창조와 건설의 길을 걸을 때에도 혁명가의 신념을 검열하는 그런 곡경에 처할 때마다 그 어떤 리념이나 철학적명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어머님의 마지막모습을 회고하며 의지를 가다듬군 하시였다.

본사기자 런해

백두령장들의 손길아래 자라난 혁명강군

주체21(1932)년 4월 25일 안도의 수림속에서 건군의 닻을 올린 때로부터 85년.

그 장구한 기간 조선인민군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자기의 성스러운 본분을 다해왔다.

조선인민군이 오늘과 같이 그 어떤 강적도 쳐물리칠수 있는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부강조국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로,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강화발전될수 있은것은 백두령장들을 진두에 모시였기때문이다.

조국의 수호자

예로부터 명장밑에 약졸이 없다고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 강군이 있다.

1930년대 초엽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안도의 밀림에서 고고성을 터친 조선인민혁명군(당시 반일인민유격대)은 정규군의 지원도 국가적후방도 없는 조건에서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며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던 일제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조선민족이 그토록 갈망하던 조국해방의 위업을 이룩하였다. 항일대전에서의 력사적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전략전술, 탁월한 령군술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총대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규무력창설을 민족의 전도와 직결된 중대사로 여기시고 정규군건설을 목적지향성있게 다그치시였다. 군사정치지휘관들을 양성하는 일로부터 각 군종, 병종, 전문병부대들을 창설하는 문제 그리고 자체의 병기공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며 로고를 바치신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마침내 조선인민군[주체37(1948). 2. 8.]은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되였다.

갓 정규무력의 길에 들어선 조선인민군은 비록 청소하였지만 미국이 도발한 전쟁(1950. 6. 25.)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국과 제국주의련합세력을 격파하고 승리를 이룩한 력사에 류례없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여 정규적무력건설과 그 강화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비범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국과의 대결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조국의 실정에 맞게 자위적군사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조선인민군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군사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시고 《일당백》의 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를 힘있게 밀고나가신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인민군대는 격변하는 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도 강철의 근위부대들로 자라나게 되였다.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에 의하여 자기 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치였다.

주체49(1960)년 8월 25일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그이께서는 지난 세기 90년대 나라앞에 조성된 엄혹한 정세에 대처하여 선군정치로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시고 군력강화에 큰 힘을 넣으시였으며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조선인민군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시였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다박솔중대를 찾으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에만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멀고 험한 전선길을 쉬임없이 걸으시며 2 490여개 단위의 무력부문을 현지지도하시였으며 인민군군인들이 조국수호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철령과 351고지, 초도와 오성산,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비롯한 조국의 고지들과 섬초소, 륙해공군부대들과 최전연의 전호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의 자욱이 깊이 새겨져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이 만능의 주체전법과 백승의 경험을 소유하고 그 어떤 현대전에도 대처할수 있는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다 갖춤으로써 우리 나라는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라설수 있었다.

세상에는 나라마다 군대가 있고 오랜 력사와 방대한 병력수,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자랑하는 군대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군대가 있다고 하여 자기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다 지켜내는것은 아니다. 이전 유고슬라비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도 군대가 있었지만 미군의 침공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여 조선인민군은 미제의 그 어떤 도발과 침략책동도 일격에 격파분쇄하고 백승만을 떨치는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판문점사건, 대형간첩비행기 《EC-121》사건…

조국땅에서 수백번도 일어났을 전쟁위험을 평정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은것은 인민군대가 무적의 총대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렸기때문이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여 혁명강군으로서의 조선인민군의 전통은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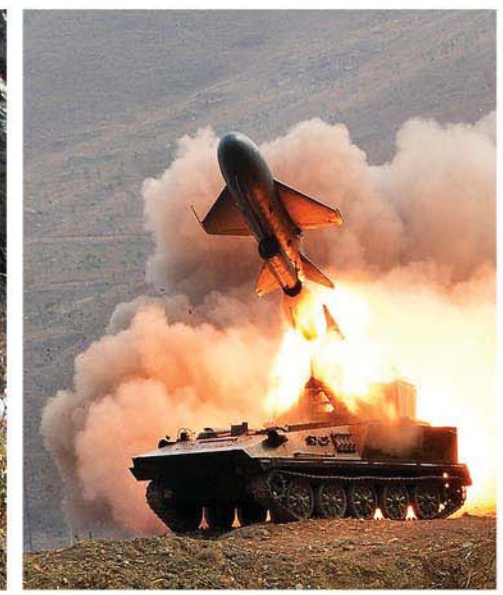
행복의 창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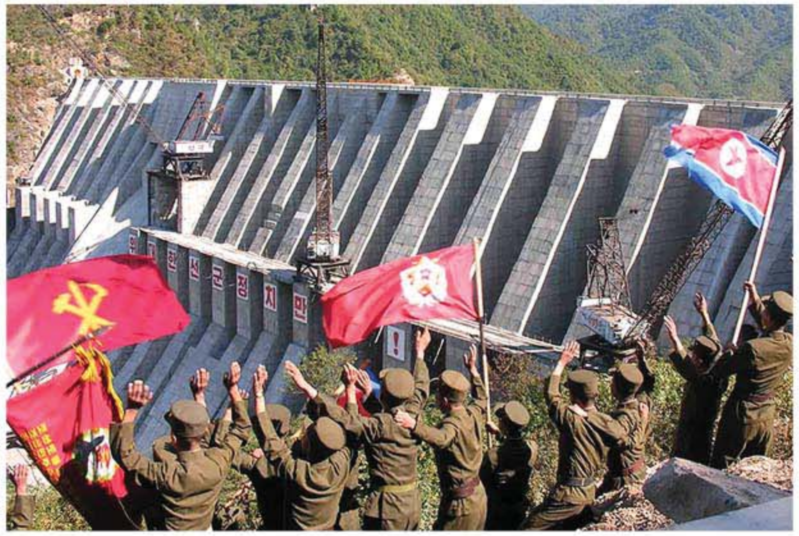
조국수호전에서 강군의 위력을 떨쳐온 조선인민군은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는 창조와 건설에서도 혁명강군으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 이것은 조선인민군이 높이 들고나가는 애국의 구호이다. 인민군대







인민군군인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나라의 곳곳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섰다.

는 자기 이름에 《인민》이라는 글자를 새긴 때로부터 조국의 수호자로서뿐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부강조국건설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마다에 인민군대를 불러주시였으며 인민군장병들이 대고조격전장들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재더미우에 솟아난 비날론생산기지를 비롯한 거창한 창조물들, 서해의 날바다를 가로막은 대규모의 갑문과 고난속에서 사회주의땅답게 변모된 조국의 대지들,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사회주의재부들에는 인민군장병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슴배여있다.

조국력사에 최악의 역경이 닥쳐왔던 지난 1990년대에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숭고한 혁명정신과 혁명적문화를 창조한것도 인민군대이며 인민경제의 주요전구들에 달려나가 화를 복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킨것도 인민군대이다.

조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으로 나라의 정치정세가 매우 긴장하였던 주체83(1994)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류다리(2단계)와 금릉2동굴을 건설할데 대한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하시여 군인들을 평화적건설에로 부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높이 받든 군인건설자들은 온 나라 인민들의 적극적인 원호밑에 짧은 기간에 방대한 건설을 끝내였다.

그뿐이 아니다.

안변청년발전소, 희천발전소,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인민극장, 창전거리…

최고사령관의 결심과 명령이라면 산악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의지와 단숨에의 정신으로 인민군대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한 기념비적대상건설에서 위력을 떨쳐왔다.

인민군대가 지닌 희생적인 투쟁과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은 오늘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전역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낳고있다.

함북도 북부피해지역과 려명거리 등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군대는 일당백공격속도로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강산이 변하는 천지개벽과 최상의 문명이 꽃핀 사회주의선경들을 펼쳐놓고있으며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를 앞장에서 개척해나가고있다.

하기에 군대와 인민은 조선인민군을 백전백승의 혁명강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키워주신 백두령장들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젖어있으며 건군절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께 대원수칭호[주체81(1992). 4. 13.]를 수여해드리고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주체101(2012). 4. 11.], 공화국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주체82(1993). 4. 9.],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주체101(2012). 4. 13.]으로 높이 모신 날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본사기자 변진혁

도서 《중국 동북해방전쟁을 도와》 (4)

지원은 전국해방의 날까지

1948년 11월 중국 동북지방의 가장 큰 도시이며 국민당군대의 총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심양이 해방되여 중국에서의 동북해방전쟁은 중국공산주의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이제는 전 중국을 해방하고 공화국창건을 선포해야 할 과제가 앞에 놓이게 되였다.

심양을 해방한 후 중국인민해방군의 주력부대의 하나인 조선사람들이 속한 제4야전군은 이어서 산해관을 해방하고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관내로 진격해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관내에 들어가서 진행한 작전은 평진전역[북평(베이징), 천진, 장가구일대의 적들을 소멸하기 위한 작전]이였다.

이 작전은 1948년 12월 5일부터 1949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였다.

제4야전군은 땅크, 장갑차와 각종 포를 비롯한 기계화부대의 엄호하에 관내에 진격해들어가 화북야전군과의 배합작전으로 1949년 1월 14일 적군 13만여명을 섬멸하고 1949년 1월 15일 천진을 해방하였다. 장가구는 이보다 앞서 해방되였다. 천진, 장가구가 해방되자 베이징방위총사령 부작의는 30만에 달하는 자기의 부대를 이끌고 투항하였다. 1949년 1월 31일 베이징은 한방의 총소리도 없이 해방되였다.

전 중국해방에서 제4야전군이 핵심적인 주력부대의 하나이고 또 여기에서 조선사람들이 돌격대적역할을 하고있는 조건에서 조선인부대들이 중국혁명을 끝까지 도와주는 문제는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을 결속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르러 중국인민해방군 제4야전군내에서는 장강이남으로 계속 진출하는 문제를 두고 여러가지 의견이 제기되였다.

이런데로부터 중국공산당에서는 이 사태를 놓고 토론하던 끝에 왕효명을 우리 나라에 파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왕효명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주의깊이 들으시고 중국혁명을 끝까지 도와주는것은 조선의 변함없는 립장이라고 천명하시였으며 그 다음날 조선인민군의 한 책임일군을 부르시여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활동과 전쟁형편에 대하여 알려주시고나서 빨리 중국의 천진에 가서 조선인부대들이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을 끝까지 도와주고 조국으로 돌아오게 할데 대한 지시를 주라고 명령하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부대들은 또다시 준엄하고도 간고한 3만여리의 진격의 길에 나서서 남하행군을 시작하였다. 2개의 방향으로 남방진출을 진행한 그들은 무더운 날씨, 체질에 맞지 않는 물과 풍토, 말라리아, 리질 등 질병을 이겨내며 매일 40km를 행군하여 3개월만에 경문과 장강일대에 도착하였다.

그러자 장개석은 미제의 조종밑에 중국공산당에 《평화담판》을 요구했고 미제는 어리석게도 중국공산당에 장강을 경계로 하여 분할통치하는것이 좋겠다는 《절충안》을 제기하면서 만일 저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원자탄을 쓰겠다.》느니, 저들의 추종국가들을 다 동원하여 《무력간섭을 하겠다.》느니 하고 위협하는 한편 장강을 경계로 하여 화평을 하면 20억US$의 무상원조를 주겠다는 등의 회유책동도 하였다. 중국공산당은 미제와 국민당의 기도를 간파하였지만 하루빨리 국내전쟁을 종결짓고 평화를 이룩할 목적밑에 국민당과의 담판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 막뒤에서 국민당군대가 저들의 무력을 증강하고 견고한 방어진을 구축하자 이것을 거절하고 전국을 해방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였다.

배도 없고 도하기재도 없었으나 조선인부대 지휘관들은 결사대를 무어 장강도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장강도하작전은 단풍전투로부터 시작되였다.

단풍-무혈간의 약 100km 전선에서 강행도하작전을 벌리여 단풍의 적을 불의에 습격하여 소멸하고 적들의 수중에 있는 선박들을 몽땅 탈취한

단풍전투에서 8명의 전투영웅이 나왔다. 리순임이 2번째로 영웅칭호를 받아 2중영웅으로 되였다.

조선인부대들은 이렇게 장강을 넘어 계속 남진하면서 호남성 장사시와 대용현소재지, 중경을 해방하며 혁혁한 전과를 올리였으며 해방지역 인민들을 새 생활에로 이끄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공로를 세웠다.

해방지역에서 반동들이 의연히 준동하면서 저항하였으나 조선인부대는 무지막지하게 살아온 토비들에게 공산당의 정책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쌀과 천을 비롯한 물건들을 가져다 나누어주면서 꾸준히 해설설복하여 토비노릇을 하던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와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였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은 창건되였으나 광동성과 광서성에서 살아남은 국민당군잔여분자들은 앞을 다투어 해남도로 도망쳐갔다.

그리하여 조선인부대들은 중국인민해방군과 함께 계속 전진하여 중국에서 대만다음으로 큰 섬이며 장개석이 《깨뜨릴수 없는 성새》라고 하던 해남도를 해방하기 위하여 해뜨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풍랑속에서 노젓기, 헤염치기, 다리건느기훈련을 이악하게 하고 경험있는 배사공을 데려다 참대를 베여 배를 뭇고 돛을 달았으며 여기에 포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12척의 참대배를 뭇고 적함의 배후로 몰고가서 갑자기 적함에 불벼락을 안기고 적의 방어시설들을 하나하나 소멸하면서 아군 주력부대의 해남도작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함에 명중탄을 안긴 사수 조찬수와 부사수가 적탄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조찬수에게 전투영웅칭호가 수여되고 그가 탔던 배를 《조찬수》호라고 명명하였으며 먼저 림고산에 올라 아군의 승리를 보장한 리여길과 리창길에게 대공상장이 각각 수여되였다.

1950년 4월 30일 해남도는 해방되였다. 중국혁명은 드디여 승리하였다.

중국혁명을 지원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중국 동북지방과 관내의 철도를 복구하고 철도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는데서도 조선인부대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중국혁명의 승리로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되고 베이징의 천안문광장에는 오성홍기가 휘날렸다.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에서 커다란 공적을 쌓은 조선인부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국으로 나오게 되였다.

대렬편성의식에서 제4야전군 정치부 주임 등자회는 조선인부대 지휘관들과 전사들이 이룩한 공훈을 높이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동무들은 3년반의 해방전쟁에서 간고분투하고 영용히 싸운 모범이였고 옹정애민의 모범이였으며 3대규률, 8항주의를 준수한 모범이였습니다. 조선민족의 아들딸들인 동무들은 조선민족의 자랑이며 또한 우리 중화민족의 자랑입니다.》

그는 계속하여 조선사람들이 중국이 곤난할 때 피로써 중국인민을 도와준것처럼 중국사람들도 앞으로 조선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지원병으로 나가 조선인민을 도울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모택동주석은 귀국하는 조선인부대에 각종 무기와 탄약 3정량과 해당한 군사장비를 보내주도록 지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9(1950)년 5월 12일 중국인민해방전쟁에 참가하였다가 귀국한 조선인민군 제4보병사단 18보병련대 지휘관, 병사들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국 동북지방을 해방한 다음에도 많은 조선청년들이 중국관내에로 계속 진격하여 양자강도하작전에도 참가하고 장사, 중경을 비롯한 많은 지역을 해방하면서 멀리 중국의 남단에까지 진격하였는데 그러고보면 조선청년들은 중국을 해방하는 큰 전투들에 거의다 참가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에 참가한 조선청년들은 수만리장도에서 포연탄우속을 헤치면서 용감히 싸워 중국의 해방과 인민중국의 탄생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제주의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끝)

경제개발구부동산규정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부동산규정은 경제개발구에서 부동산의 취득과 등록, 리용, 임대료와 사용료의 납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는데 이바지한다.

경제개발구부동산규정은 주체104(2015)년 3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55호로 채택되였다.

경제개발구부동산규정에는 일반규정과 부동산의 취득, 등록, 양도와 저당, 리용, 임대료와 사용료, 제재 및 분쟁해결과 관련한 내용들이 밝혀져있다.

경제개발구에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해외동포는 토지리용권을 임대받는 방법으로 취득할수 있다.

토지임대와 관련한 협상, 입찰, 경매에서 선출된 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서에는 해당토지의 위치와 면적, 용도, 임대기관, 임대료, 계약취소사유 같은 내용을 밝히며 체결된 계약서는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토지임대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정한데 따라 임대료의 전액 또는 1차납부금을 받은 날부터 14일안으로 임차자에게 리용증을 발급한다.

경제개발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경제개발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당사자는 취득한 날부터 14일안으로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등록신청서를 낸다. 등록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국적, 기업의 명칭과 주소, 토지 또는 건물의 위치와 면적, 리용목적, 리용기간 같은것을 밝히고 토지리용증, 계약서사본, 기업등록증사본, 회계검증문건 같은 등록에 필요한 증명문건을 첨부한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부동산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안으로 해당 증명문건들에 기초하여 부동산의 현물과 가치를 검토하고 등록한 다음 신청자에게 부동산등록증을 발급한다.

부동산등록사항이 변경되였을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안으로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변경리유를 밝힌 부동산등록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부동산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지 않았을 경우, 건설투자액의 25%이상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 여러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취득하고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당사자들의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 저당할수 없다.

부동산은 매매, 교환, 상속 등의 방법으로 양도할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할수 있다.

저당권자는 저당자가 채무상환기관에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채무상환기간전에 사망하여 상속자가 없을 경우 재판소에 저당물의 처분을 신청할수 있다.

경제개발구에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해외동포는 부동산의 리용원칙을 지켜야 한다.

부동산리용원칙은 혁명전적지와 사적지, 력사유적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잘 보존할수 있게 하여야 하며 자연 및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의 인구집중과 공해를 막으며 토지를 람용하지 말며 정해진 토지면적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개발구에서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당사자는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동산을 취득한자는 유효기간안에 토지리용권을 재임대하거나 건물소유권을 임대할수 있다.

경제개발구에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해외동포는 부동산임대료와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관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안에 임대료의 전액을 물어야 하며 많은 면적의 토지를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임대기관이 승인한 기간안에 임대료를 나누어 물수도 있다.

토지리용권자는 해마다 정해진 사용료를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개발기업에게는 사용료를 10년까지, 그밖의 특별장려부문의 기업에게는 사용료를 5년까지의 범위에서 낮추어주거나 면제하여줄수 있다.

경제개발구부동산규정을 어겨 토지와 건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며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의 방법으로도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다.

인민경제대학 부교수 강용룡

인민들의 호평과 인정을 받을수 있는 제품을



원산구두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구두의 질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

어떻게 하나 자기들이 생산하는 《매봉산》상표가 붙은 구두를 나라의 원료, 자재를 가지고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고 그 질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인기제품으로 되게 하려는 이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의 야심만만한 배심이 그러한 성과를 안아오게 하고있다.

기술일군 정옥은 《올해 정초부터 공장의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해 우리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관철과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정말 그이께서 하라는대로만 한다면 가까운 앞날에 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두가 세계적인것으로 될것이라는 확신을 더 굳게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그 심정은 비단 자기만이 아닌 온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모두의 심정이며 반드시 그렇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이곳 기술집단에서만도 올해에 들어와 서로의 지혜를 합쳐 고심어린 탐구끝에 종전에 비해 기술준비기간을 절반이나 단축하며 제품설계의 다양성과 생산의 과학성을 담보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신발설계체계를 완성하였다.

공장에서는 이런 성과에 기초하여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일으키면서도 설비현대화, 새 제품개발을 위한 과학연구와 생산, 판매의 일체화를 보다 공고히 하면서 이 사업에 종업원모두가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하여 공장에서는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누구나 하루일을 끝마치면 과학기술보급실로 달려가 지식의 탑을 쌓으며 창의고안과 새 제품개발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특히 그들은 제품에 대한 정확한 평가의 기준은 인민들의 목소리라는것을 자각하고 사람들이 붐비는 시내의 길거리와 공공장소들에 자주 나가 공장제품을 신었거나 모양이 독특한 구두를 보면 어김없이 제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그 우단점을 파악한데 기초하여 보다 좋은 형태와 색갈을 가진 구두제품을 착상하기도 한다고 한다.

공장로동자 한정길은 말하였다.

《생산을 내밀며 과학기술을 배우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도 하자니 힘은 들지만 놀라운 성과속에 나도 명제품, 명상품의 개발자가 될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크게 가지게 되였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기절초풍하게 보다 훌륭한 새 제품들을 내놓을 결심이다. 지금까지 10여건의 각이한 남녀구두도안을 내놓았지만 거기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공장에서는 제화흐름선에 전열선대신 적외선등을 설치하여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접착세기를 보다 높여 제품의 질을 더욱 갱신하였으며 종전에 리용하던 철심대신 자기 고장에 흔한 자재를 리용함으로써 구두의 경량화에서도 또 한번 비약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오늘 공장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세계적인 명제품, 명상품생산목표실현을 위해 끓임없이 줄달음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하여 -

자기의 힘으로 더 좋게, 더 많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인 올해에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려는것은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이불생산자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자수기, 단침이불누빔기, 다침이불누빔기, 연단기, 재봉기를 비롯한 이불생산설비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는 생산현장에서는 겨울이불, 여름이불, 봄가을이불, 결혼식이불, 어린이이불, 침대깔개를 비롯한 여러가지 침구류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있다. 제품창고에는 형태와 크기, 색갈과 무늬가 다양하게 생산된 《금강산》표 이불들이 그득히 쌓여있다.







비단천과 명주솜, 압착솜, 실을 비롯한 이불자재들은 모두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녕변견직공장 등에서 생산된것이다.

이곳 이불생산자들은 생산한 제품들을 육아원, 애육원, 양로원, 초등, 중등학원을 비롯하여 탁아소와 유치원 등에 먼저 보내주고있다.

이불생산작업반 반장 한정금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 이불생산자들은 경공업부문에서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를 종자로 틀어쥐고 경영전략을 바로세워 생산을 활성화하며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와 질제고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기대공들은 새 기대에 정통하여 자기 기대를 능숙하게 다루는 동시에 누구나 도안가, 창작가가 된 심정을 안고 인민들의 기호와 수요에 맞는 질좋은 이불을 생산하기 위해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아끼지 않고있다.

이들은 오늘의 시대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이불을 생산하자면 과학기술을 앞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푸는 방도를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찾고있다.

조국인민들이 요구하는 이불제품을 자기의 힘으로 더 좋게, 더 많이 생산하려는 이불생산자들의 노력에 의해 성과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어엿한 대학생들로 성장하여

몇해전 남조선당국의 유인랍치행위의 희생물이 될번 했던 아이들이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여러해가 지나갔다. 어엿한 대학생들로 성장한 그들의 모습을 지면에 담고싶어 얼마전 우리는 취재길에 올랐다.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평양건축종합대학이였다. 이곳에서는 권성철이가 공부하고있었다.



평양건축종합대학 건축대학 학생 권성철(오른쪽)

우리는 그가 생활하고있는 기숙사에 먼저 들리였다. 호실에서 그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고있다가 우리를 맞이하였다. 무슨 공부를 하댔는가 하는 우리의 물음에 그는 잠간 동안을 두었다가 일기를 쓰고있었다고 말하였다.

일기라는 말에 우리는 직업적인 호기심이 동하였다. 성철은 별로 주저하는 기색도 없이 우리에게 일기장을 내밀었다.

일기장에는 그가 대학에 입학해서부터의 생활이 적혀있었다.

2015년 4월 1일

오늘 대학에서는 우리 신입생들을 위한 입학식이 있었다. 그 입학식에서 나는 토론을 하였다. 수많은 학생들앞에 나서니 처음에는 속이 좀 떨렸다. 그러나 나를 따뜻한 한품에 안아 대학생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계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해졌다. 나는 앞으로 자신을 풍부한 지식과 높은 창조적능력, 고상한 도덕풍모와 건장한 체력을 지닌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로 준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건축설계로 받들어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지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되는대로 생활하던 나쁜 습성이 있다. 이것을 고치기 전에는 공부를 잘할수 없는데…

2017년 1월 1일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들으며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시려는 그이의 절절한 말씀은 나로 하여금 2년간의 대학생활을 돌이켜보게 하였다. 나의 아버지가 되여 생활의 구석구석을 돌보아주는 당위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 그리고 나를 친동생처럼 극진히 돌봐주고있는 정철학동무를 비롯한 학급동무들앞에 언제면 떳떳하게 나설수 있을가. … 그러나 하자고 결심하면 못할 일이 없다. 이제부터 새로운 권성철이가 되여 걸음걸음 원수님을 따라 걸으며 나의 재능과 열정을 다 바쳐 꼭 건축설계용프로그람작성에서 1인자가 되겠다. …

나날이 커가는 그의 모습이 일기에 다 담겨져있었다. 우리는 앞으로 그가 꼭 훌륭한 설계가로 성장하리라는 확신을 가지며 이번에는 평양출판인쇄종합대학을 찾았다. 그곳에서는 처녀애들처럼 부끄러움을 잘 타는 류광혁이가 공부하고있었다. 교실에서 동무들과 마음껏 웃고있는 그의 모습을 보느라니 담임교원이 들려준 이야기가 다시금 새겨졌다.

평양출판인쇄종합대학 학생 류광혁
(오른쪽에서 세번째)



광혁이가 대학에 입학하였을 때였다. 학부에서는 그를 위한 새로운 과정안을 만들고 물리강좌의 리동주선생이 오후시간을 전적으로 광혁을 위해 바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수학, 물리과목의 기초가 약한 광혁이였지만 점차 엄격하면서도 설득력있는 선생의 강의에 끌려들어갔으며 나중에는 동주선생의 모습에서 혈육의 정을 느끼게 되였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공부를 잘하라고 콤퓨터며 학습도구들과 생활용품을 안겨주던 학부당위원장선생과 최룡을 비롯한 학급동무들의 진정에서 부모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자기를 지켜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우리와 만난 류광혁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해 저의 생일날이였습니다. 그날 전 하루종일 기쁨에 떠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학부당위원장선생님, 온 학급동무들이 저를 찾아와 축하해주었습니다. 조국의 품에서 떨어져나갈번 한 저를 품어주고 이렇게 대학에서 공부하게 해준 그 사랑이 가슴에 젖어들었습니다. 저는 동무들과 함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며 생각하였습니다. 여기가 나의 집이고 선생님들과 동무들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이고 형제들이며 그 품을 떠나 나는 못산다고말입니다.》

진정에 넘쳐있는 광혁의 눈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있었다. 그는 자기를 위해 그처럼 마음써주는 선생님들과 동무들의 기대에 꼭 보답할 마음을 안고 학습에 열중하겠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그 결심을 꼭 실천하리라는 기대를 그에게 표명하고 성철이와 광혁이와 같은 처지에 빠지였던 동무들이 공부하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으로 취재길을 이어갔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민족의 전통약이 은을 낸다

평양시 평천구역 봉남종합진료소에서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개발하여 치료예방사업에서 효과를 보고있다.

최근년간 진료소에서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고려약들인 세포활성주사약과 세포활성물약, 단삼지렁이혈전교갑약은 간질병과 뇌혈전, 뇌출혈후유증치료에서 효과가 매우 높다.

우리와 만난 소장 전룡애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진료소에서는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으면서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고려약들을 더욱 발전완성시킬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고려과가 이 사업의 앞장에 서고있다. 고려과 의사 오영숙은 치료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나라에 흔한 단삼, 궁궁이를 비롯한 약용원료들에 첨단생물공학적방법을 적용하면 항산화, 항비루스작용이 뚜렷하고 세포재생과 면역능력을 높여주는 고려약을 만들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착상을 하게 되였다. 하여 그는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중앙병원이나 의학과학부문의 전문연구소도 아닌 크지 않은 진료소에서 고려약들을 개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문헌자료를 얻기 위해 인민대학습당과 보건단위들을 찾기를 얼마이며 거듭되는 실패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지새운 밤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혈액을 요구하는 혈전용해실험때에는 자기뿐아니라 가족들의 팔에 주사기를 꽂기도 한 그였다. 그러한 그를 진료소의 의사들이 도와나섰다.

마침내 그는 10여년간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인

상식

예문관

예문관은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왕의 명령문, 지시문을 작성하였던 중앙관청을 말한다.

고려시기에는 건국이후 원봉성, 한림원, 사림원, 문한서 등으로 불리워오다가 1308년에 문한서를 춘추관과 합치면서 예문춘추관으로 불리웠다. 그후 1325년에 예문춘추관은 예문관과 춘추관의 두개 관청으로 각각 독립하였다. 이때 예문관에는 주부(또는 공봉, 정7품) 1명, 수찬(정8품) 1명, 검열(정9품) 2명 등 관리들과 록사, 승사랑, 대조, 기관, 서수 등 8명의 리속들이 있었다.

1356년에 한림원으로 고쳐졌다가 그후 다시 예문관으로 되였으며 1389년에 예문관과 춘추관이 합쳐져 다시 예문춘추관으로 되였다.

이 관청이름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그대로 부르다가 1401년에 예문관과 춘추관이 다시 각각 독립적인 관청으로 되여 조선봉건왕조말까지 존속하였다.

이 시기 예문관의 관리로는 령사(정1품, 령의정이 겸임), 대제학(정2품), 제학(종2품) 1명씩과 그밖에 직제학(정3품, 동승지가 겸임) 1명, 응교(정4품) 1명, 봉교(정7품) 2명, 대교(정8품) 2명, 검열(정9품) 4명이 있었다.

* * *

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는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항산화, 항비루스, 면역활성이 좋은 세포활성주사약과 세포활성물약은 개발되자마자 동안의 주민들은 물론 다른 지역 주민들속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세포활성주사약은 효소를 낮추고 교질상태를 빨리 개선할뿐아니라 심장혈관순환장애, 추골동맥순환부전, 동맥경화성고혈압 등 순환기질병치료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다.



고려약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진료소의 의료일군들

평천구역 봉남동에서 살고있는 리옥심녀성은 《지난 기간 나는 지방간, 지방취장, 심장신경증 등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무기력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하루종일 누워있기만 하였다. 그런데 세포활성주사약을 쓰기 시작하여 열흘후부터 병이 호전되기 시작하더니 두달만에는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였다. 그뿐아니라 얼굴의 검버섯도 없어지고 피부가 한결 맑아지고 부드러워졌다.》고 말하였다.

세포활성주사약과 세포활성물약은 욕창, 창상, 화상에서도 치료효과가 매우 좋았다.

외과의사 리명천은 욕창으로 신고하던 봉남동의 김명희녀성이 세포활성주사약을 쓰고 지금은 완전히 호전되였으며 지난해 6월 뜻밖의 사고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 입원한 명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탄부들의 화상치료에도 이 약이 크게 이바지되였다고 말하였다.

특히 단삼지렁이혈전교갑약은 혈전용해, 항혈소판응집, 항산화, 혈관확장 및 에네르기대사개선작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것으로 하여 뇌혈전, 뇌출혈후유증치료와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였다.

어느날 진료소의 의료일군들은 중구역 교구동에서 살고있는 김필녀녀성이 당뇨병을 오래동안 앓고있는데다가 다발성뇌경색까지 겹쳐 좌측완전마비와 우측불완전마비로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비록 자기 동주민이 아니였지만 의사 오영숙과 황영심은 그의 집으로 찾아가 정성을 다해 치료해주었다. 그때로부터 한달후 김필녀녀성은 점차 마비가 풀리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혼자서 위생실출입까지 하게 되였다.

이 약들은 그것이 나타내는 뚜렷한 치료효과로 하여 전국과학기술축전, 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 지적제품전람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진료소에서 개발한 고려약의 일부



지금 의사 오영숙을 비롯한 의료집단은 대중적인 고려약들의 효능을 더 높일 목표를 내세우고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오영숙은 말하였다.

《치료효능이 높은 고려약들을 더 많이 개발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것이 우리들의 목표이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첨단돌파전의 맨 앞장에 우리가 서자》

김책공업종합대학 나노물리공학연구소에서 첨단돌파전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갈 야심만만한 의지를 안고 과학연구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이곳 연구소의 플라즈마연구집단은 첨단기술의 하나인 역변환조종기술을 리용하여 플라즈마절단기를 새로 개발하였다.

역변환식플라즈마절단기는 강철재료뿐아니라 일반절단기로 자를수 없는 합금강이나 유색금속재료들을 임의의 형태로 빨리 절단할수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금속, 기계, 선박공업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는 첨단설비이다.

연구집단의 조경성, 오영남은 경량화된 플라즈마절단기를 개발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발전된 일부 나라들에서만 독점하고있던 역변환조종기술을 우리 식으로 하나하나 확립하여 효률높은 휴대용역변환식플라즈마절단기의 국산화를 실현하였다.

나노분리막연구실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실장 오경렬을 비롯한 연구사들은 우리 나라의 무진장한 자연광물로 만든 나노려과장치를 훌륭히 완성하여 지난해 진행된 제13차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여러 단위의 주문도 받고있다.

이들은 대동강건재공장에 나노려과장치를 도입한 결과 아크릴계라텍스중합공정에 필요한 정제된 물의 안정성을 지난 시기에 비해 1.8배로 높이였다.

바다물담수화를 올해의 중점과제로 선정한 이들은 지금 연구사업에 피타는 정열을 쏟아붓고있다.

측정기구연구실 연구사들은 모두가 20대의 쟁쟁한 청년과학자들이다.

실장 장철진(31살)은 두해전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먹이처방프로그람과 자동사료공급기를 개발하여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자동사료공급체계를 완성하였으며 대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리용될 미세기포발생기를 련이어 만들어냈다.

리혁민, 박충일, 최국성, 장대일, 홍성현을 비롯한 젊은 연구사들은 자외선흡수식오존농도측정기, 용액전도도측정기와 같은 측정설비들을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우리 식으로 개발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가고있다.

그들은 측정설비의 핵심인 수감부를 국산화하기 위하여 나노재료를 적극 리용하며 프로그람과 전자공학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동을 벌려나가고있다.

연구소의 레이자, 초전도공학, 초고압가공연구실의 과학자들도 첨단제품개발목표를 방대하게 세우고 시간을 쪼개가며 사색하고 탐구해나가고있다.

소장 백운영, 부소장 김성호는 연구소의 모든 연구사들에게 오늘 우리가 세운 연구목표는 높고 방대하지만 할수 있다, 없다를 론하기 전에 하겠다, 할수 있다는 만만한 투지와 배짱을 안고 과학기술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자고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나노물리공학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과학기술분야에서 기어이 세계를 앞서나가겠다는 드높은 열의를 안고 오늘도 콤퓨터모의실험과 현장실험 등을 끊임없이 계속해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려해



여기서 로동자처녀들이 산다







얼마전 어느 일요일 아침 우리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건설된 로동자합숙을 찾았다.

진달래원과 외랑으로 련결되여있는 합숙은 7층짜리 건물이였다. 합숙의 외벽에는 로동자합숙이라는 큼직한 글자가 붙어있고 지붕에는 태양열온실이 있었다.

우리가 현관홀에 들어서니 아늑한 감을 주는 색갈의 벽들마다에 미래과학자거리며 마식령스키장 등을 찍은 사진들이 걸려있을뿐아니라 공간들마다에 여러가지 꽃들이 장식되여있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합숙책임자 황기복을 만났다.

《원래 합숙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렇게 궁궐같은 새 합숙을 마련해주시여 우리 공장처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안내하였다. 우리는 먼저 1층에 있는 대중식사실과 생일식사실, 주방으로 향하였다. 식사실들과 주방은 합숙생들이 언제 식사를 했던가싶게 정갈하고 깨끗하였다.

지난 1월 중순 합숙생들이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이 식사실에서 잔치상보다 더 훌륭한 연회상을 받았다는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그와 함께 이채로운 라선형계단을 따라 체육 및 오락실이 자리잡고있는 2층에 올라섰다.

거기에서는 탁구경기가 한창 진행되고있었는데 산뜻한 운동복을 입고 경기를 하는 처녀들보다 응원에 열을 올리는 처녀들이 더 극성이였다. 창문곁에서 윷놀이, 별꼬니를 하는 처녀들의 모습도 보이였다.

방금 탁구경기를 끝낸 508호실 김영미는 우리에게 《로동후에 여기에 와서 탁구를 즐겨치군 하는데 이제는 제가 직장별탁구경기에 나가는 선수로까지 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를 만나본 후 우리는 3층에 올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다녀가신 306호실에 들리였다. 세면장에서 빨래를 하던 한 처녀가 황황히 마중나오며 반가와하였다. 그는 3직장 조사공 박예봉이라고 자기 소개를 하면서 호실의 량켠에 위치한 두방가운데서 《1》이라는 수자를 단 왼쪽방문을 조용히 열고 《정향동무, 기자선생님들이 왔어요.》라며 우리를 방으로 이끌었다.

정향이라는 이름이 귀에 익다고 생각하며 방안에 들어서니 아니나다를가 방안에서 책을



읽다가 우리를 보고 반가와하는 처녀가 다름아닌 지난해에 6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김정향이였다.

《여기가 저의 집입니다.》

자기의 집이라는 스스럼없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 젖어드는데 우리의 눈앞에 새 집에 이사오는 날 호실의 처녀들이 나란히 함께 찍은 한장의 사진이 안겨왔다. 사진의 맨 웃자리에 《원수님 다녀가신 우리 집》이라는 글이 새겨져있었다.

정향이는 호실의 성원이 4명인데 한명은 진달래원에 수영을 하러 방금 나갔고 또 한명은 탁구치러 갔다고 말하면서 4개의 침대와 함께 처녀들이 동시에 몸단장을 할 수 있는 큰 거울이 있는 방, 옷장과 책꽂이를 갖춘 안방까지 있어 정말 생활하기에 편리하다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합숙에 호실들뿐아니라 처녀들이 시집가기 전에 음식만드는 법을 자체로 익힐수 있게 전문주방칸처럼 꾸려진 료리실습장들이 매층마다 있다는 합숙책임자의 말을 들으며 3층에 있는 료리실습장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그곳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풍겨나오고있었다.

찬장, 식탁, 주방도구들이 갖추어진 그곳에서는 앞치마를 두른 2명의 처녀들이 전골을 만들고있었다. 한 처녀는 곤로우에 있는 남비에 기름을 두르고 돼지고기를 볶고있었고 다른 한 처녀는 배추와 홍당무우, 양파, 버섯 등을 손질해놓은 후 물에 불구었던 분탕을 썰고있었다. 금시라도 푸짐한 전골을 훌훌 불며 좋아라 웃고 떠드는 처녀들의 얼굴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로동자합숙에 차넘치는 처녀들의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에서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시며 제일 좋은것을 다 마련하여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의 세계가 뜨겁게 어려왔다.

우리는 만리마속도의 창조자들인 로동자처녀들이 사는 궁궐같은 이 집에 차넘치는 행복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보답의 한마음, 충정의 한마음을 안은 혁신자처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할빈지구협회 부회장 박흥근오빠 앞

우리의 작은 마음도 합쳐나갑시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형님과 조카들도 다 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어머니를 비롯한 조국에 있는 친척들모두가 건강합니다.

지난해에 오빠를 9월과 12월에 두번이나 만났는데 벌써 여러달이 흘러갔습니다.

오빠도 생각날것입니다. 지난해 9월 재중동포참관단으로 조국을 방문하여 가족상봉을 할 때 우리와 만났던 두 녀기자들이…

그들과 우연히 만난 기회에 저는 《금수강산》잡지에 오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싣게 되였습니다.

두 딸과 외손자를 데리고 사진까지 찍고보니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출장을 다니는 애들의 아버지가 이런 때는 좀 곁에 있었으면 하는 서운함이 없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오빠에게 편지를 보내겠다는 저의 전화를 받고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빠에게 부디 앓지 말고 조국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길 바란다고, 네 이모(박흥근오빠의 어머니)에게 건강한 몸으로 조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는것이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오빠도 보다싶이 저의 어머니는 팔십고령이지만 얼마나 정정한지 모릅니다. 지난 설명절날에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에게 여든번째 생일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상을 받지 않겠다고 굳이 만류하였지만 자식들의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그날 오빠의 이야기를 또 꺼내놓았습니다.

《이모, 우리 조국이 제일입니다. 매번 조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바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당당히 맞서싸워 이기는 나라, 자기의 힘으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가는 나라는 오직 조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의 가슴에는 위대한 조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영예가 언제나 차고넘칩니다.》

어머니는 오빠의 이 말을 외우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해외에 있건 조국에 있건 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잘 받들어 나라의 부강번영과 조국의 통일을 위해 애써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 생각해보았습니다.

해외의 어려운 조건에서 오빠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한 일이 얼마나 많을가 하고 말입니다.

오빠가 오래동안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동포사업을 해온데 대하여 다는 헤아릴수 없지만 중국 할빈지구의 동포들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기 위해 언제나 사색하고 실천해나가는 미더운 오빠의 그 모습을 그려볼 때면 저도 조국에서 그에 못지 않게 더 많은 일을 해나갈 결심을 가다듬군 합니다.



오빠, 조국의 눈부신 현실은 더 좋은 래일을 손저어 부르며 우리를 만리마속도창조에로 이끌어주고있습니다.

조국과 해외에서 우리의 작은 마음들도 애국의 한길에 합치고 합쳐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갑시다.

그럼, 오빠의 귀한 몸 건강을 바라며 펜을 놓겠습니다.

평양시 서성구역 상신동 71인민반
김영란동생 올림

평범한 사람


김재철

얼마전 우리는 전자공업성 아침콤퓨터합영회사를 찾았다.

취재대상은 회사의 생산부원 김재철이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하려는 주인공에 대해 더 깊이 알고싶어 회사의 사장을 먼저 만나보기로 하였다.

《아침》상표를 단 콤퓨터의 본체가 흐름식으로 조립되여나오는 생산현장에서 김성철사장과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였다.

《그 동무는 걸보기에는 말이 없고 뚝해보이지만 책임적이고 열정적인 사업가로 회사성원들의 존경을 받고있습니다. 첨단정보설비생산기지인 우리 회사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품질검사방법을 도입한 사람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설비들의 개발과 계렬생산에 크게 기여한 사람도 바로 김재철동무입니다.》

이렇게 허두를 뗀 김성철은 우리에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지난해 충정의 70일전투가 벌어지던 나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투를 앞둔 어느날 사장은 회사의 생산을 담당한 김재철을 찾았다.

사장은 그에게 어떻게 하나 당대회에 드리는 로력적선물을 마련할 의지를 반영하여 높이 세운 상반년생산계획을 70일전투기간에 넘쳐 수행하는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새 제품을 개발해낼 목표를 다시 세우자는 제기를 하였다.

제기는 옳았다. 그러나 백번 재고 한번 가위질을 하랬다고 구체적인 타산이 안받침되지 못한 계획을 서뿔리 세울수 없는 그였다. 하기에 그는 사장에게 이틀후에 그와 관련한 대책안을 세워내놓겠다고 하였다.

그런 후 그는 지난 시기의 생산관련문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통계수자들을 하나하나 따져보았다. 뿐만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새 제품을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일군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반드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김재철을 비롯한 회사의 일군들이 사업에서 찾은 귀중한 경험이였다.

김재철은 생산원가와 리윤, 그에 따르는 자재보장, 인적 및 물적잠재력 등을 면밀히 따져본 후 지난 시기에는 엄두조차 낼수 없었던 방대한 생산계획과 새 제품개발목표를 세웠다.

하여 아침콤퓨터합영회사에서는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 높이 세운 방대한 생산목표를 수행하였을뿐만아니라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로력적선물을 훌륭히 마련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특별감사를 받아안았다. …

사장과 이야기를 나눈 후 우리는 김재철을 만나보았다.

듣던바 그대로 그는 자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의 종업원들과 일군들의 수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까지 들어가며 우리에게 말해주었다. 그의 진실한 마음이 무척 돋보이였다.

새 제품개발을 위해




가정에서

그래서인지 우리는 그의 가정에 대해서까지 알고싶은 심정이 앞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의 집은 만경대구역 칠골3동에 위치하고있었다.

그의 가정은 안해와 사회과학원에서 연구사로 일하고있는 아들, 건강합작회사에 다니는 딸까지 합치여 모두 네식구였다.

가정에는 서로 위해주는 따뜻한 분위기가 차넘치였다. 우리는 허물없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가정의 행복한 력사가 어리여있는 부피두터운 사진첩을 펼쳐보기도 하였다.

사진첩을 통해 우리는 총련일군이였던 김재철의 아버지가 조국의 품에 안겨 중요부문 일군으로 생의 말년까지 충직하게 사업한데 대해서며 어머니가 1980년대초 **김일성**경기장이 개건될 때 스스로 야간지원돌격대원이 되여 애국의 땀방울을 흘리였을뿐만아니라 지금도 자식들의 훌륭한 거울이 되고있는데 대해서 등 이 집안의 가풍을 엿볼수 있었다. 그 가풍은 깨끗한 량심을 안고 변함없이 애국에 사는것이였다.

김재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평범한 이 나라의 한 공민입니다. 저는 조국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일을 할 때가 제일 기쁩니다.》

그의 소박하면서도 진정에 넘친 이 말을 들으며 우리는 그에 대해 더 깊이 알수 있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상식

위정척사운동

위정척사운동은 19세기 중엽에 봉건유학자들이 중심이 되여 벌린 반침략운동이다.

이 운동은 조선봉건왕조 말엽 우리 나라에 들어온 카톨릭교선교사들과 국내카톨릭교도들을 반대하는 봉건유학자들에 의하여 시작되였다.

《위정척사》란 《바른 학문》(유학)을 지키고 《사학》(요사스러운 학문 즉 카톨릭교)을 배척한다는 뜻이다.

19세기 중엽 봉건사회의 위기가 격화되고 유미자본주의침략이 더욱 강화되자 그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반침략투쟁에 고무된 애국적인 유생들은 《척양척왜》(서양과 일본을 배척한다는 뜻)의 구호를 들고 위정척사운동을 벌렸다. 이 운동의 중심인물들은 기정진, 리항로와 그 제자들인 최익현, 류린석을 비롯한 봉건유생들이였다.

그들의 투쟁방법에서 기본으로 된것은 《척양척왜》를 주장하여 국왕에게 상소문을 내거나 유생들에게 호소하는것과 같은 방법이였다. 위정척사운동은 흥선대원군(1820년-1898년)이 실권(1863년-1873년)을 잡은 시기에는 봉건정부로부터 일정한 지지를 받았으며 객관적으로 당시 애국적인민들의 반침략투쟁과 보조를 같이할수 있었다. 그러나 1874년이후 봉건정부의 실권을 틀어쥔 국왕(고종)과 명성황후일파의 사대투항주의적인 매국배족정책에 의하여 이 운동은 탄압당하면서 점차 수그러져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이 운동에 참가하였던 최익현, 류린석을 비롯한 일부 유생들은 19세기말 일제의 조선침략이 강화되자 반일의병운동에 참가하여 반침략투쟁을 계속하였다.

이 운동은 19세기말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 * *

유모아

발명과 발견

선생: 학생들, 발견과 발명이 어떻게 다릅니까?

학생: 아버지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를 발명하였습니다.

* * *

제힘으로 행복을 창조해가는 고장

얼마전 우리는 황해북도의 한끝인 신계군을 찾았다.

읍지구로 들어서는 우리의 눈앞에 신계천기슭을 따라 량옆으로 펼쳐진 신계읍의 풍경이 펼쳐졌다. 산뜻하게 단장된 소층살림집들이며 일매진 도로, 현대적미를 갖춘 편의봉사시설들, 신계천을 가로지른 다리…

우리의 마음을 더욱 끈것은 주변의 경치와 잘 어울리면서도 아담한 휴양각을 련상케 하는 신계천1호발전소였다.

우리는 이곳에서 군의 일군인 문동영을 만났다.

그는 무척 반가와하며 《우리 군에 자랑이 늘어나니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흥하는 신계군의 자랑은 바로 중소형발전소들입니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그러면서 신계천에만도 3개, 지석리를 비롯한 여러리들에도 중소형발전소들이 있다는것이였다.

우리는 먼저 신계천1호발전소부터 돌아보았다. 겉볼안이라고 고르로운 발전기의 동음이 울리는 발전기실이며 조종실 등 발전소내부의 모든것이 잘 꾸려져있었다.



자체로 생산한 전기의 덕을 보는 군농기계작업소

돌아볼수록 크지 않은 산골군에서 이런 발전소를 자체로 여러개나 일떠세웠다는 사실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일군은 우리의 심정을 알아차린듯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발전소건설의 첫삽을 뜰 때만 하여도 군은 맨손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전기문제해결만이 군살림살이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가는 길이라는 일념이 군인민들의 마음속에 꽉 차있었다.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이 많았지만 군인민들은 공사를 힘있게 다그쳐 조업의 날을 안아오고야말았다. 앙양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그들은 신계천2호발전소의 조업도 빠른 시일안에 보장하였다.

전기문제가 풀려나가니 가는 곳마다에서 증산의 동음이 드높고 인민들의 생활은 나날이 향상되였다.

우리는 군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전기문제가 해결되니 고구마가공식품이며 당과류들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고, 이제는 우리가 원료기지에서 농사만 잘 지으면 생산은 문제없다는 군고구마가공공장 종업원들의 이야기에는 래일에 대한 신심이 넘쳐있었다.

자체의 힘으로 신계천3호청년발전소를 세운 군농기계작업소에서도 여러가지 농기계들과 륜전기재들의 부속품들을 원만히 보장하여 농사에서 좋은 작황을 거두도록 한것은 물론 강냉이종합탈곡기, 벼종합탈곡기를 비롯한 능률높은 기계설비들을 창안제작하였다는 리영철지배인의 얼굴에도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어려있었다. 자체로 마련한 원료로 갖가지 인민소비품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하는 화학공장도 그래, 피복공장과 장공장 등 우리가 들린 군안의 지방공업공장들 그 어디서나 전기덕을 노래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내달리고있었다.

공장들만이 아니였다. 태양열남새온실에서는 배추, 부루, 쑥갓 등의 남새들이 푸른 잎새를 한껏 펼치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군학생소년회관과 미래원에서는 고향땅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갈 주인공들의 밝고 열정넘친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있는 리미일동포의 사촌언니 최풍숙의 집에도 들려보았다.

풍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동생이 나를 만날 때마다 신계에 대해서랑, 집형편이랑 물어보군 한다오. 그때마다 나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와서 직접 보라고 말해주군 하오.》

발전소들의 완공으로 전변을 안아오는 군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저녁에 더 잘 알수 있었다.

집집의 창가들에 넘치는 밝은 불빛이며 밤풍치를 돋구는 거리의 가로등들, 여기저기의 이채로운 불장식들, 읍지구의 야경을 비껴담고 유유히 흐르는 신계천…

읍지구의 야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우리에게 문동영은 말하였다.

《몇년후에 우리 신계군에 다시 오십시오. 아마 그때엔 또 다른 신계천기슭의 모습을 보게 될것입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신계군유치원에서



조선속담 (경험)

- 고기는 씹어야 맛을 안다

무슨 일이나 실제로 해보아야 진짜맛을 알수 있다는 뜻으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야 그 본질을 똑똑히 알수 있음을 이르는 말.

- 눈엔 익고 손엔 설다

보기는 많이 보아 쉽게 할수 있을것 같으나 실지 손을 대여 해보면 잘 안된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지 보지만 말고 직접 해보아야 한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늙은 말이 길을 안다

경험이 많으면 그만큼 일에 대한 묘리를 안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듣는것이 보는것만 못하다

무엇이나 자기 눈으로 보는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다는것을 이르는 말.

- 백리길도 한걸음으로 시작된다

그 어떤 큰일도 시작을 잘해야 한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안 본 룡은 그려도 본 범은 못 그린다

① 무슨 일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말하기는 쉬우나 실지로 하기는 힘들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② 눈앞에 벌어진 사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움을 비겨 이르는 말.

- 가물철의 오이는 먹어보아야 쓴맛을 안다

무슨 일이나 실지경험을 통해봐야 그 진가를 알수 있다는것을 이르는 말.

- 겨울이 (다) 되여야 솔이 푸른줄 안다

겨울이 다 되여 다른 나무의 푸른 잎들이 떨어진 뒤에야 소나무가 푸르싱싱하다는것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사람은 어려운 때를 당해보아야 진짜속내를 알수 있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 *

그리움에 불타는 칭송의 열기

지난 2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광명성절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였다.

조국인민들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그리움과 불타는 칭송의 마음을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75돐경축 중앙보고대회와 백두산밀영결의대회, 제21차 **김정일**화축전을 비롯하여 다양한 광명성절경축행사들을 중앙과 지방에서 성대히 진행하였다.

조국에서의 광명성절경축행사에 참가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 리기석은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영원토록 빛날것이라고 하였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차상보는 우리 조국은 태양의 나라로 천만년 빛을 뿌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뿐만아니라 재일조선인예술단, 중국 단동시 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대표단,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대표단 성원들과 해외동포들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시였는가를 절감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광명성절경축행사는 조국에서뿐아니라 해외에서도 대회와 강연회, 회고모임, 음악회 등으로 광범히 진행되였다.

일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은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와 총련중앙사진전시회 등을 성대히 진행하였으며 미국에 있는 동포들도 뉴욕에서 우륵교향악단 단장 리준무가 펼쳐놓은 《2월의 봄》음악회에 절세의 위인을 그리는 자기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았다.

위대한 장군님을 흠모하고 그리는 해외동포들의 마음은 중국에서 펼쳐진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행사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심양시에서 진행된 경축행사에는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과 일군들, 산하조직대표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성원들, 심양시에 살고있는 조선공민들,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일군들 그리고 중국에서 사업하고있는 우리 나라 지사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여기에는 중국의 인사들도 초대되였다.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보고대회보고에서 최은복의장은 조국인민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전인민적인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고 하면서 피어린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달리는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시는 마지막순간까지 애오라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사회주의위업과 인류의 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온넋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시며 력사와 인민앞에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고 격찬하였다.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의 조직사업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최수봉은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5돐을 맞고보니 그이를 더더욱 흠모하며 그리게 된다고 하면서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신 거룩한분이시였을뿐아니라 언제나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먼곳에 있는 자식들에게 더 큰 은정과 사랑을 다 돌려주신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고 격조높이 이야기하였다.

행사참가자들은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남기신 령도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기록영화를 뜨거운 격정속에 감상하면서 장군님의 념원이 현실로 꽃펴나는 조국의 모습을 온몸으로 절감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사진 및 도서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을 깊은 감회속에 돌이켜보았으며 광명성절경축 예술공연을 통하여 장군님을 사회주의조국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깊이 간직하였다.

년로한 몸이지만 광명성절경축행사에 참가한 료녕성 조선족로인협회 회장 리석복은 자기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완전히 매혹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난날 약소국으로 수모받던 조선을 세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무서워하지 않는 강대국으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을 재중동포들은 대성인으로 우러르며 그분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야 할것이라고 뜨겁게 이야기하였다.



잡지 《백두-한나》가 위대성선전에 이바지되도록



명절 맞이 기쁨에 넘쳐있는 최수봉가정

사진전시회 준비사업



광명성절경축행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은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며 그이와 꼭같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장군님의 념원은 반드시 빛나는 현실로 꽃펴날것이라는 확신을 더 굳게 하여주었다.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하여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보고대회



민속놀이로 즐거운 한때



사진 및 도서전시회







김정일화전시회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영화감상회

광명성절경축 예술공연의 일부







영원한 태양-빛나는 한생

지난해 12월 로씨야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사관에서는 로씨야의 각계층 명류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5년전 너무도 뜻밖에 우리의 곁을 떠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그리는 회고모임이 진행되였습니다.

모임에서는 조국과 인민앞에 그리고 세계정치사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장군님의 거대한 업적들과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그이의 고귀한 한생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끝없이 울려나왔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탄생 75돐이 되는 2월 16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릇 한 인간이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속에서 한생을 살고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추억을 남겼을 때 사람들은 그가 영생한다고 말합니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그때로부터 달리는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오로지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 자신을 깡그리 불태우신 **김정일**장군님!

나는 오늘도 온 겨레와 세계인민들이 못 잊어 그리는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러 우리 장군님이시라고 소리높이 웨칩니다.

올해는 민족의 위대한 령수들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5돐과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75돐, 항일빨찌산 녀장군이신 김정숙어머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경사로운 민족최대의 명절 광명성절을 맞으며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더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미숙하게나마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이전 쏘련가맹공화국이였던 우즈베끼스딴에서 태여나 그때 당시의 모든 쏘련사람들과 같은 사상과 리념, 사고방식에 습관된 재로동포 4세대입니다.

그러다나니 당연히 그들과 마찬가지로 서방의 대중보도수단들이 불어대는대로 조선에는 수령에 대한《개인숭배》,《개인미신》이 존재한다고 믿고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쏘련에서 태여났으며 쏘련식으로 컸던것입니다.

2008년 8월 어느날 나는 조국의 한 일군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였는데 그는 나에게 왜 아직까지 평양에 가보지 않았는가고 묻는것이였습니다.

그에 대해 나는《조선에 가면 마음대로 다닐수도 없고 사람들도 만날수 없다는데 도대체 3~4일동안 가서 무엇을 볼수 있겠는가. 나는 사람들의 생활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일반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싶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였습니다.

한것은 조선에서는《독재》와《개인숭배》,《개인미신》이 인민들을 억누르고있는것처럼 생각되고있었기때문이였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도 불손하였던 나의 태도가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아울러 진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례한 언사를 한데 대하여 전체 조국인민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날 나는 뜻밖에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조국방문초청을 받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9년 2월 14일 나는 4명으로 구성된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부터 숙소인 평양고려호텔까지 오면서 참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평양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깨끗하였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였지만 모든 거리들과 아스팔트도로들이 깨끗이 정리되여있었습니다.

나는 이전에 레닌그라드(현재 싼크뜨-뻬쩨르부르그)에서 대학공부하던 시기 4년동안 도로청소공으로 일해보아서 도시가 이 정도로 깨끗하려면 얼마만한 품을 들여야 하는지 잘 알고있습니다.

체류기간 나는 광명성절을 맞으며 성대하게 진행되는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 여러곳을 참관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유롭게 걸어서 온 평양시를 일주하면서 많은 공공장소들을 돌아보았고 거리와 상점들에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일상생활로부터 시작하여 교육, 과학, 예술 등 여러 분야의 문제들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조선을 질식시키려는 미국의 경제제재와 몇해째 계속된 자연재해로 하여 류례없이 간고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으나 조선은 난관앞에 주저앉지 않았다는데 대하여,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 그대로이신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주체혁명위업을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민족의 존엄과 영예, 나라와 인민의 안녕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당당히 솟구쳐오른데 대하여 긍지높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로씨야에서 온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알고는 그토록 따뜻하고 친절히 대해주면서 나의 모든 질문들에 성의껏 진심으로 대답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나에 대한 동정심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동정하려고 왔던 내가 자기의 뿌리인 고국과 떨어져 조국인민들의 력사와 생활에 대해 잘 모르고있은것으로 하여 오히려 그들의 동정의 대상이 되였던것입니다.

유럽과 아메리카주, 이전 쏘련의 가맹공화국들에서 온 많은 동포들은 그 고난의 행군시기 조국인민이 발휘한 강의성과 애국심에 탄복하였습니다.

이전 쏘련국방상 야조브원수는 자기의 회상록에서《**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있는 나는 그분들을 위인들로,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장, 위대한 수령들로 높이 존경한다.》고 썼습니다. 또한 조선인민의 애국심을 파쑈도이췰란드와의 전쟁에서 발휘된 쏘련인민들의 애국심과 비교하였습니다.

보건과 교육실태, 과학과 농업, 광업의 발전수준을 알면 그 나라에 대한 평가를 내릴수 있습니다.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미 1974년부터 조선에서 세금이 없어진데 대해 모르고있었습니다. 이전 쏘련을 포함하여 유럽과 아메리카주의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는 감히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조국에서는 훌륭한 무상치료제도하에서 누구나 다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봉사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공화국정부에서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며 그들에 대한 교육교양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었습니다.

아무리 외진마을이라도 몇명 안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일떠서 아이들은 부모들과 떨어져 기숙하면서 공부하지 않고있었습니다.

조국에서는 버림받은 늙은이나 거지, 마약중독자나 매춘부들도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경제와 과학분야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끈질긴 제재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과학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있었습니다.

로씨야자연과학원 원사인 최 알렉쎄이동포는 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하여 나라의 과학발전수준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과학발전에 그토록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는 조국의 미래는 참으로 창창하다, 인민우에 군림하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조선의 수령님들이시야말로 모두가 절대적으로 흠모하고 백방으로 본받아야 할분들이시라고 격찬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핵무기와 우주정복기술을 소유하고있는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자기 나라가 강대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민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경모심과 신뢰심, 조선민족의 자부심이 더더욱 커만가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힘이 약하여 침략자에게 나라를 통채로 빼앗긴 약소국의 설음에 피눈물을 쏟던 우리 민족이였고 렬강들의 희생물로 비참하게 뜯기우는 조국을 붙안고 왜 남과 같이 크지를 못했느냐 원망속에 가슴치며 산설고 물설은 이역의 하늘아래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불쌍한 우리 동포들이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그때 겨레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광야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를 타승하시여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였으며 불세출의 선군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반미대결전에서 련속 승리를 이룩하시고 핵보유의 민족사적대업을 이룩하시는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조국방문의 날이 흘러갈수록 나는 서방의 대중보도수단들에서 불어대는 그 모든것이 완전한 거짓이였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에는 수령들에 대한 《개인숭배》, 《개인미신》이 없습니다.

있다면 위대한 수령님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전체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경모심, 그분들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모시고 따르려는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령, 당, 인민의 혼연일체만이 존재하고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쏘련사람들이 자기 군대와 군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이전 쏘련시기에 《인민과 군대는 하나다!》라는 구호가 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생활에 구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쏘련이 붕괴될 때 군대의 위상이 존경받을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것에 대해 상기하기조차 싫습니다.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군대가 자기 인민과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관계를 맺고있을뿐아니라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 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이 채택되였지만 그이께서 거듭 만류하시여 발표되지 못하고있다가 3년이 지나서야 공포하게 되였다고 합니다.

조국의 인민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그처럼 성대히 경축한 8일간의 체류기간 나는 텔레비죤을 통해서도 그리고 경축행사장에서도 그이를 뵙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나는 저도모르게 한 일군에게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대답이 지금 장군님께서는 공장과 농촌,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다는것이였습니다.

바로 그것이였습니다.

인민들은 장군님의 탄생일을 경축하며 휴식을 하고 그이께서는 그 인민을 위해 일을 하고계신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위력한 핵폭탄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조선의 위대한 일심단결의 근본핵이였습니다.

조국을 떠나기 3일전 우리는 다른 해외동포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는 기회에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와 관련한 기록영화를 보게 되였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생전에 늘 사나이는 남한테 절대로 눈물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가르쳤으며 나는 일생토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때조차 나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따로 떨어져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온 겨레가 커다란 슬픔에 잠겨 가슴을 치는 화면들을 보면서 나는 자신을 걷잡지 못하였습니다.

저도모르게 쏟아지는 눈물을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머리를 숙였으나 문득 나 혼자만 울고 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열을 터뜨리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항일의 영웅들이 안치되여있는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았습니다.

항일전의 나날 빨찌산녀장군으로 명성을 떨치신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앞에 정중히 꽃다발을 드리면서 나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온갖 고생을 무릅쓰며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나의 어머니와 친지들의 어머니들을 생각하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전체 조선민족의 위대한 어머님의 모습으로 나의 앞에 계시였습니다.

나는 한쪽으로 비켜서서 또 울었습니다.

내 심중을 리해한듯 우리와 동행하던 한 잡지사 주필이 나를 부축하며 마치 어린애를 달래듯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나의 첫 조국방문나날들을 생각할 때면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조선속담과 《코를 맞대고는 얼굴을 볼수 없다. 멀리 설수록 큰것이 보인다.》고 한 로씨야의 저명한 시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당시 로씨야에서 조국에 나처럼 오랜 기간 체류한 동포는 몇명 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때의 조국방문은 나의 눈을 틔워주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흠모심과 조국에 대한 커다란 긍지를 안겨준 나날이였습니다.

다시말하여 땅이 크고 인구가 많고 숱한 현대적군사장비들을 가지고있다고 하여 나라와 민족이 위대해지는것이 아니라 걸출한 수령을 모실때라야 비로소 그 나라와 민족의 강대성이 만방에 떨쳐질수 있다는것을 나의 이 심장으로 뜨겁게 절감하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령장으로서의 천재적재능을 지니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의 칭호를 수여받으시였습니다.

장군의 위대성과 자질은 그가 이룩한 승리적업적에 의하여 평가된다고들 합니다.

특히 총포성없는 전쟁, 인적손실이 없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세계인민들은 가장 크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승리를 우리의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미제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수없이 이룩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조국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공격을 정의의 보복타격으로 물리치는 핵강국, 우주강국, 세계사회주의의 강력한 보루로 떨쳐주시였습니다.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믿으시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의 위대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오늘도 전체 조선민족뿐아니라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칭송을 받고계십니다.

오늘 조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새로운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노도쳐나가고있습니다.

천리마시대에 이어 새로운 만리마시대가 시작되였습니다.

지난해 세계를 들었다놓은 70일전투와 200일전투의 신화적인 대승리가 이것을 확증해주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제국주의의 악랄한 책동과 사회주의 조선의 《종말》에 대해 떠들고있는 미국과 일본의 전쟁사환군들의 온갖 요설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철퇴로 보기 좋게 짓뭉개버리시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워가시고 조국통일성업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십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2016년의 서막을 열어제낀데 이어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와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대성공, 9월의 핵탄두폭발시험의 성과적진행으로써 주체의 핵강국의 위용은 만방에 떨쳐졌습니다.

국방력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고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성과적으로 우주궤도에 진입함으로써 조선의 국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습니다.

오늘날 조선의 지위와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체의 선군조선은 세계가 우러르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핵강국, 위성강국, 청년강국으로 눈부시게 솟아올랐습니다.

조선의 말한마디와 움직임에 세계가 흔들리고 원쑤들의 어리석은 《붕괴론》은 총파산되였으며 오랜 세월 조국땅을 배회한 지정학적숙명론이 지정학적우세론으로 바뀌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세계를 굽어보는 강대국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나는 당당히 자부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 인민적풍모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의 조종간을 억세게 틀어쥐시고 세계를 주도하고계시기에 조선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저 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이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은 천년만년 세월이 흐른대도 나의 심장속에 아니 온 겨레와 인류의 마음속에 언제나 영생의 모습으로 계실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75돐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제1부위원장 겸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김칠성

주체106(2017)년 2월 4일

인 상 기

돋보이는 조국의 녀성들



매번 조국에 올 때마다 감동되는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위훈을 세워가는 조국녀성들의 모습이다.

총련에서 녀성사업을 하고 또 녀성이 되여 그런지 나는 조국의 녀성들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있다.

오늘 조국의 녀성들은 한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당당히 한몫을 맡아 수행하고있다.

지금도 지난해에 있은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던 때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 20여명의 녀성들이 토론을 하였는데 그 내용들이 다 감동적이였다.

토론자들중에는 한두명도 아니고 여러명이나 되는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보아주는 녀성이 있는가 하면 자기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수십년세월 원군의 길을 이어가는 녀성들도 있었다.

나는 그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고 생각하였다. 지구상에는 나라도 많고 또 나라마다 녀성들이 있다. 그러나 조국의 녀성들처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자기의 청춘은 물론 한생까지 바쳐가는 녀성들은 아마 없을것이다.

과연 무엇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있기에 그런 아름다운 행동들을 할수 있는지. 나는 그것이 바로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라고 생각한다. 실지 조국의 녀성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의도하고 바라시는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있기에 그것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헌신적으로 바쳐가고있는것이다.

나도 조국녀성들처럼 동포녀성들을 조직에 묶어세우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결심이다. 정말이지 조국녀성들의 모습이 돋보인다.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려성희

통일기를 흔들며



고국의 물과 공기가 참으로 맑고 시원하다.

참으로 기분이 좋다. 나는 자전거를 잘 타지만 우정 속도를 늦추어 천천히 달리였다. 자전거를 타고가는 전기간 나는 한손에 통일기를 꼭 잡고있었다. 크지 않은 나의 통일기는 조국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재중동포들의 마음을 담아싣고 가을날의 시원한 산들바람에 끝없이 날리였다.

자전거를 타고 누런 벼이삭이 머리숙인 무연한 벌판을 지나가느라니 자연히 나의 가슴은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서 바로 나의 선조들이 나서 자랐구나 하는 생각으로 뜨거워졌다.

나라없던 그 세월 정든 고향을 떠나 이역땅으로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지 않으면 안되였던 나의 부모들이 오늘 통일자전거행진단의 한 성원으로 고국땅을 찾은 내 모습을 볼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고국의 통일을 위한 길은 한두사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열수 없다.

북과 남의 조선동포들뿐만아니라 우리 해외동포들의 크지 않은 힘도 서로서로 합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면 통일의 길은 반드시 열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며 세계를 향하여 끝없이 비약하며 전진하는 고국의 눈부신 발전모습은 나에게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그이께서 계시여 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하기에 나의 손에 쥐여져있는 통일기는 그 어떤 상징적인 기발이기 전에 조국통일을 위하여 이 한몸을 다 바쳐갈 신념의 징표라고 생각한다.

나는 고국이 통일되는 날까지 마음속에서 이 기발을 높이 휘날려나가겠다.

중국 길림성 도계옥

[주체105(2016)년 10월]

개성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5)

- 고려성균관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개성의 력사유적을 찾는 우리의 발걸음은 고려성균관으로 향하였습니다.

고려성균관은 고려시기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최고교육기관입니다. 지금 개성시에 있는 고려성균관(개성성균관)은 교육기관으로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습니다.

고려성균관은 992년에 세워졌는데 그때(고려시기)의 성균관은 임진조국전쟁때 일본침략자들이 불태워버려 없어지고 지금의 건물은 1602년-1610년기간에 다시 지은것입니다.

고려성균관은 약 1만㎡의 넓은 부지에 자리잡고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재, 서재, 명륜당, 동무, 서무, 대성전을 비롯하여 당시의 건축술을 자랑하는 18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엄격한 유교적질서에 맞게 남북축을 따라 중심부분을 대칭으로 구성하였으며 검박을 표방하는 유교적교리에 따라 사찰과는 달리 장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한적한 곳에 자리잡은 높은반학생들을 위한 대성전구획과 낮은반학생들을 위한 명륜당구획을 엄격히 구별하였으며 명륜당을 배집으로, 대성전을 합각집으로 하고 크고작은 건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학교건축의 일반적특징과 선조들의 재치있는 건축술을 잘 보여줍니다.

고려성균관은 현재 우리 나라에 남아있는 옛 건물들중에서 그 규모와 구조가 크고 째인 조선봉건왕조시기 중엽의 건물로서 당시의 건축술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됩니다.

오늘 고려성균관은 고려박물관으로 리용되고있으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민족이 이룩한 력사와 전통에 대하여 알려주고있습니다.

고려박물관(옛 고려성균관) 옆에는 고려시기 국가의 최고교육기관이였던 성균관을 계승하여 나온 오늘의 현대적인 경공업종합대학인 고려성균관이 조선식건축물로 일떠서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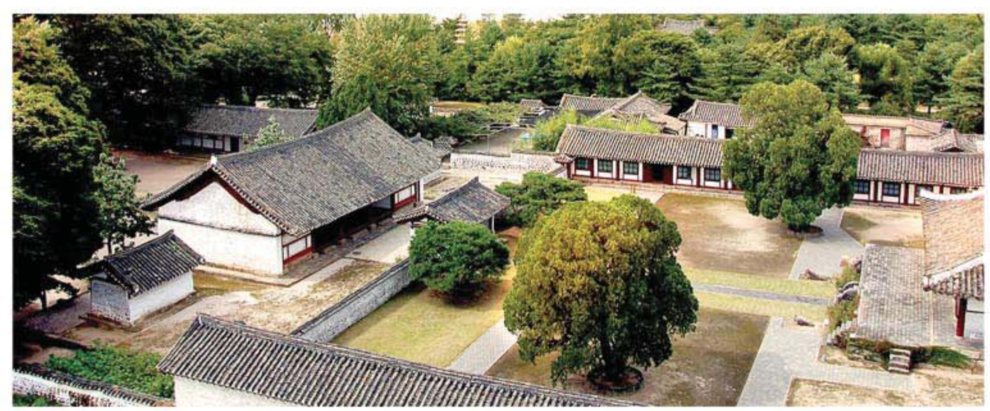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81(1992)년 5월 5일 개성시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개성경공업단과대학을 경공업종합대학으로 하고 대학의 이름을 고려시기에 세운 성균관(대학)을 계승하여 《고려성균관》으로 명명하여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려성균관의 창립년도는 성균관의 전신인 국자감이 창립된 992년으로 하고 창립날자는 9월 1일로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대학의 학과지표와 규모, 대학의 사명과 임무, 지위와 역할, 교육내용과 방법, 대학건설과 관리운영 등 대학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그뿐아니라 친필로 《고려성균관》이라는 대학명판글을 우리 글과 한자로 각각 써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에 고급승용차와 천연색텔레비죤수상기, 록음기, 악기들 그리고 최신식교육설비들을 보내주시였으며 교육조건을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습니다.

고려성균관(경공업종합대학)은 고려인삼학부, 고려도자기학부, 고려방직학부, 고려수예학부 등 여러개의 학부와 수많은 전공학과들을 두고 경공업부문에 필요한 기술인재들을 종합적으로 양성하고있습니다.



본사기자 유선화

칠색무지개 수놓아진 아동옷-색동저고리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면 귀여운 자식들에게 고운 옷을 해입히려고 여러모로 마음쓰는것이 부모들의 심정입니다.

자식을 가진 저도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색동저고리 한벌을 마련하였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딸애가 먼저 달려나와 저를 반겨맞아주었습니다.

딸애는 제가 펼친 꾸레미에서 색동저고리를 보자 너무 좋아 깡충깡충 뛰며 서둘러 옷을 입는것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은 저고리 색동저고리…》하고 노래를 부르며 당실당실 춤까지 추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귀여운 딸애의 모습을 자랑하고싶었습니다. 그래서 색동저고리를 입은 딸애의 손목을 잡고 그 옷을 곱게 지어준 평양시 대동강구역에 자리잡고있는 문흥조선옷점으로 향하였습니다.

우리와 만난 조선옷점책임자 장옥화는 딸애의 고운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더니 어느때도 그러하지만 온갖 꽃이 만발하는 봄철에 조선옷에 대한 수요가 제일 높다고, 이렇게 조선치마저고리나 아롱다롱한 색동저고리를 곱게 입고 거리를 오가는 녀성들과 아이들을 볼 때면 쌓였던 피로도 저절로 가셔진다며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색동저고리는 저고리소매에 색동단을 달아지은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민족옷입니다.

색동저고리를 만드는 색동단은 견실을 여러가지 색으로 물들여짜는데 다섯가지색이면 5색단, 일곱가지색이면 7색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삼천리금수강산의 아름다움을 무지개에 비유하여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등 5~7가지 색줄을 내여 천을 짠것은 아마도 아이들의 고운 꿈이 현실로 꽃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들의 기호와 감정에 맞는 꽃, 나비 등 작은 무늬를 놓아 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천을 저고리소매에 달아 어린이들의 민족옷인 색동저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날에는 색동저고리를 색동달이, 까치동저고리라고도 하였는데 아마도 귀엽고 깜찍한 어린이들이 입는 옷이라고 하여 그렇게 불렀던것 같습니다.



색동저고리는 깃, 소매, 앞단, 고름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색동저고리의 깃은 초록색, 옥색, 노란색, 분홍색 등 소매의 색동단과 잘 어울리는 색갈로 하였으며 앞섶은 색동단을 대기도 하고 여러가지 색천을 모나게 무어서 대기도 하였습니다.

색동저고리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소매입니다. 소매는 장난이 심한 어린이들의 심리와 활동에 편리하게 하면서도 조선옷의 우아한 맛이 살아나게 아름다운 곡선으로 뽑았는데 흔히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푸른색, 분홍색, 자주색, 흰색 등으로 칠색무지개와 같은 조화를 이룬 색동단으로 하고 이에 맞게 고름의 너비와 길이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깃과 고름, 끝동에 회장을 두르고 금박으로 꽃무늬나 뜻있는 글자를 찍거나 수를 놓아 장식하기도 하여 색동저고리의 아름다움을 더해주었습니다.

처녀애들의 색동저고리는 길이를 짧게 하고 거기에 분홍치마, 노란치마, 빨간치마를 받쳐 입히였으며 총각애들의 색동저고리는 길이가 허리아래까지 내려오게 하고 옷고름을 저고리등뒤로 한번 돌려 앞에서 매게 하였으며 여기에 옥색바지와 조끼를 받쳐 입히였습니다.

색동저고리는 철에 따라 여름철에는 은초사나 항라와 같은 얇은 사직물로 만들고 겨울철에는 주로 모본단이나 양단으로 만들었으며 색동단으로 짠 천을 리용하기도 하고 일곱가지 색갈의 천을 무어서 쓰기도 하였습니다. 색동저고리에는 어깨부분에만 세가지 색동을 댄 삼색동저고리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저에게 색동저고리에 대하여 더 잘 알게 하였고 색동저고리에 대한 애착심을 더욱 가지게 하였습니다.

아름답고 맵시있을뿐아니라 어린이들의 정서에도 잘 맞는 색동저고리를 입고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딸애의 모습은 첫돌옷으로는 색동옷이 좋다고 하시면서 돌생일에 색동옷을 입히고 사진이나 한장 찍어주면 어린이들이 커서 자기의 어린시절을 인상깊게 회상할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교시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였습니다.

동포여러분, 아름다운 색동저고리를 입은 손자, 손녀들의 손목을 잡고 따뜻한 이 봄날을 한껏 즐길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며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글 본사기자 최원주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행차를 멈추게 한 다섯살의 소년

조선봉건왕조시기 명종왕때의 어느 봄날이였다.

경기도 김포군(당시)의 큰길가 둔덕에 서있는 한그루의 정자나무아래에서 마을아이들이 모여앉아 천자문을 읽고있었다.

이때 둔덕아래로 나있는 큰길로 한 높은 관리의 행차가 지나갔다. 글을 읽던 아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요란한 행차를 구경하려고 서로 앞을 다투며 길가로 내려갔다.

그러나 겨우 다섯살밖에 안되여보이는 한 어린아이만이 그대로 앉아 글을 읽고있었다.

길을 재촉던 관리가 둔덕에 홀로 남아 글을 읽고있는 아이를 보고 기특한 생각이 들어 가마에서 내려 아이한테로 올라가 물었다.

《얘야, 다른 아이들은 모두 행차를 구경하는데 너만은 어찌 그냥 앉아있느냐?》

어린아이는 관리를 올려다보더니 당돌하게 대답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글읽기에만 마음쓰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답에 감복된 관리는 이내 발걸음을 뗄수없어 집은 어데이며 아버지는 누구인가를 묻고 그의 아버지를 찾아보았다.

《그대의 아들은 보통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 참다운 학자 한사람이 나오리라는것을 믿는다.》

관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에 대한 칭찬을 하고 길을 떠났다.

그 아이가 바로 조헌이였다. 1544년에 김포군에서 태여난 조헌은 어렸을 때부터 몸가짐이 의젓하고 매우 효성스러웠다. 마을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집에서 부모들의 일손을 도와 집안일을 돌보는것을 더 즐기였다.

열살때부터 김황에게서 글을 배운 그는 매일밤 광솔불을 켜놓고 글을 읽었으며 낮에 밭에서 일할 때에는 밭두덩에 책걸이를 해놓고 그우에 책을 올려놓았다가는 틈나는대로 읽었다.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제일먼저 의병대를 무어 왜적을 반대하여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되였다.

* * *

사 화

곽재우의 안해

1588년 여름 어느날 곽재우(1552년-1617년)는 자기의 안해 리씨때문에 모대기고있었다. 리씨는 시집온 나흘째부터 낮잠을 자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잤던것이다.

날이 가고 달이 바뀌여도 조금도 나아지는것이 없자 곽재우는 어느날 리씨가 자고있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니나다를가 안해는 역시 낮잠을 자고있었다. 불끈거리는 가슴을 누르면서 그의 어깨를 여러번 흔들었다. 그제야 간신히 눈을 뜨고 자기를 깨우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참 올려다보더니 남편임을 안 리씨는 얼른 일어나앉았다.

《여보, 이런 법이 어디 있소?》

곽재우는 솟구치는 격분을 누르지 못하여 언성을 높이였다.

《남편의 망신은 둘째치고 남의 집안을 어떻게 만들어놓자는 심보요?》

곽재우가 당장 요정낼듯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으나 안해는 흐트러진 머리쪽을 가다듬고 옷매무시만 바로잡았다.

자기 말에 끄떡하지 않는 안해를 보자 곽재우는 더욱 약이 올랐다.

《어서 대답을 하오. 나를 섬기고 집안을 받들려 시집을 왔소 아니면 나를 속태워 죽이고 집안을 망쳐놓자고 왔소?》

《저에게 무슨 큰 잘못이 있다고 이러세요?》

《여보, 주부가 집안을 거두지 않고 밭일도 하지 않으면서 낮잠만 자는게 큰 잘못이 아니란 말이요?》

《주부가 낮잠만 자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은 그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안도 나라가 망하지 않아야 유지되는줄 아옵니다. 제비둥지가 깨지면 둥지안의 제비알이 어찌 성하겠나이까?》

《뭐라구?》

《지금 제비둥지와 같은 나라가 왜적의 침입으로 깨여질 형세인데도 아무런 걱정없이 글이나 읽고 술에 취해 나날을 보내고있는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잘못이라 여기지 않는데 어찌 제비알같은 집안 하나 망하게 된다고 꾸짖나이까?》

《엉?》

곽재우는 안해의 뜻밖의 대답에 놀라 아무말도 못하였다. 그의 말이 옳았다. 곽재우는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글을 읽고 술도 마시지만 요즘 북방에서는 외적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남쪽 바다건너에서는 왜적들이 침략해오려고 날치고있었다. 그러나 외적의 침입을 제압하고 방비하는것은 왕궁에서나 하는것으로만 여겨왔던것이다.

안사람이 낮잠만 자면 집안이 망하는것은 생각했으나 바깥주인이 술에나 취해 지내면 나라가 망하리라는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것이다.

말문이 막히여 물러나온 곽재우는 그 이튿날부터 술놀이를 딱 끊고 두레놀이, 매사냥 등으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하며 무술을 익혀나갔다.

이때부터 곽재우의 안해도 낮잠을 자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과 밭일을 도맡아 해제끼면서 남편의 싸움준비를 도와나섰다.

그후 몇해 안있어 왜적의 침입으로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곽재우는 의병장으로서 이름을 떨쳤다.

*　*　*

상 식

망간이 부족하면 로화를 앞당긴다

망간은 물질대사에 필요한 필수미량원소의 하나이다.

최근 학자들은 산화과정을 막는 힘이 약해지는것이 사람을 늙게 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보고있다.

만일 망간이 부족하면 로화가 촉진되고 머리칼이 희여지며 이발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망간이 부족한 로인들에게서는 반응이 굼떠지고 기억력이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편식하지 않고 영양가가 많은 여러가지 음식물을 먹으면 망간이 섞인 약을 먹지 않아도 망간부족현상을 극복할수 있다.

망간은 여러가지 잡곡, 콩류, 가지, 파일, 차, 신선한 남새에 많이 들어있지만 식물성음식들에 있는 망간은 몸에 흡수되기 힘들다. 고기류, 알류, 젖제품에는 망간이 적게 들어있지만 몸안에서의 흡수률은 높다. 그러므로 망간을 보충하려면 고기와 알, 젖제품을 먹는것이 좋다.

*　*　*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민족이 뜻과 힘을 합치는것은 조국통일운동의 본성적요구이며 통일애국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민족의 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조국통일의 주체는 그 어떤 외세가 아니라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다.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줄수도 없다.

북남관계개선과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이다. 민족을 분렬시킨것도 외세이며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다.

지난해 조성되였던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을 놓고보아도 그렇고 지나온 북남관계력사를 돌이켜보아도 동족을 무시하고 외세의존, 외세공조에 매달리는 한 북남관계개선은 고사하고 불신과 대결만이 짙어가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문제해결이 더욱 멀어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그 어떤 외세도 조선민족의 운명 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이 언제나 자기들의 리익만을 절대시하였을뿐이고 조선의 통일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는것, 조선민족이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에서 함께 모여 복락을 누려나가는것을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금도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위력으로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며 북남관계개선의 사변적성과들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위업을 다그쳐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확신과 락관을 안겨주었던 6. 15통일시대의 환희로운 나날들을 잊지 못해하고있다. 바로 자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겨레가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떨쳐나 서로의 뜻과 힘, 지혜와 열정을 하나로 하였기에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6. 15통일시대를 열어놓을수 있었다.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면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련대련합하고 단결하며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는것이다.

그러자면 사상과 제도, 지역과 리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발히 접촉하고 래왕하며 민족의 근본리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서로 손을 잡고 전민족적인 통일대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특히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여야 한다.

근 70년전 4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의 그 나날처럼 각당, 각파, 각계각층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민족의 총의를 모아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현실적 방안들을 모색한다면 능히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다지며 극단적인 대결의 지속으로 전쟁의 문턱에 서있는 북남관계를 구원하고 조국강토가 또다시 통일의 환희로 끓어번지게 할수 있다.

오늘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민족의 근본리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나아가려는것이 공화국의 의지이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에 대한 겨레의 갈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는 지금이야말로 겨레가 거족적인 통일운동으로 불신과 대결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야 할 때이다.

시련과 도전의 광풍이 아무리 사나와도 애국의 열정을 안고 신심드높이 전진해나가는 전체 조선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심청룡

나날이 암담해지는 사회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남조선에서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로 떠나간 사람들의 수가 무려 21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2015년에만도 그 수는 2만 5 300여명으로서 10년간 최고수치를 기록하였다.

하다면 남조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에로 나가고있는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온 남녘땅을 사람 못살 지옥으로, 인권의 황량한 무덤으로 만든 괴뢰보수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이 초래한 결과이다.

더우기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았던 박근혜는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무려 200여가지의 공약들을 내걸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자리를 따내자마자 박근혜는 그 공약들을 휴지통에 처박고 오히려 반인민적악정을 강화하였다. 《재벌들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이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흰소리를 치며 그 무슨 《경제민주화》에 대해 떠들던 역도는 《규제는 암》이라고 하면서 재벌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주들이 제 마음대로 구조조정을 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할 권한을 주었다.

그런가 하면 그 무슨 《구조개혁》의 간판밑에 《공무원년금제도개혁》, 《로동개혁》을 비롯한 각종 악정을 실시하여 근로대중의 삶을 사정없이 벼랑끝으로 내몰았다.

박근혜정권이 추진한 경제정책들은 《서민들의 주머니털어내기》, 《로동자죽이기》, 《청년죽이기》정책들로서 남조선을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말살된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

지금 남조선에서 실업자는 무려 450여만명, 반실업자는 1 000만명에 이르고있다. 비정규직이 나날이 확대되고있는 속에 정규직로동자들도 언제 비정규직으로 전락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시달리고있는 형편이다.

보수패당의 무능력과 인민들의 생명안전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어난 각종 재난도 이루 헤아릴수 없다.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을 차디찬 바다물속에 수장시킨 《세월》호대참사, 그에 이어 일어난 《돌고래》호침몰사건, 온 남녘땅을 아비규환의 대수라장으로 만들어놓은 메르스사태 그리고 공포와 우려를 자아낸 지카비루스사태는 그 대표적실례이다.

오죽하면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자고 일어나면 사고가 났다는 불길한 소식뿐이다.》, 《도대체 이 땅에서 안전지대가 어디인가.》,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겠다.》는 아우성이 련일 터져나오고있겠는가.

미래가 없는 암담한 남조선사회의 실상은 청년실업문제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남조선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데 의하면 청년실업률은 34.2%로서 사상 최악에 이르렀다고 한다. 청년들이 《놀고먹는 쉬는 인구》, 모든것을 자포자기한 《청년백수》가 되여 거리를 방황하고 자기가 태여난 곳을 《불지옥》이라고 저주하며 해외이민을 떠나야 하는것이 남조선현실이다. 그에 대해 한 남조선언론은 《그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뼈아픈 모습》이라고 개탄하였다.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다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 오늘 남조선은 세계최악의 자살지옥으로 락인되고있다.

남조선의 한 야당의원은 박근혜《정부》가 한짓이란 오만과 독선, 거짓으로 서민경제를 몰락시키고 자살률 1위, 채무증가률 1위, 최저임금 1위 등 50개부문에서 남조선이 세계적으로 수치스러운 1위를 차지하게 한것뿐이라고 하면서 박근혜를 《거꾸로 가기에 능한 올림픽선수권보유자》라고 야유하였다.

현실은 집권자의 악정이 초래한 《지옥같은 남조선》시대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저주로운 땅을 앞을 다투어 떠나가고 남조선전역에서 반박근혜초불이 거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결국 청와대악녀가 지난 3월 탄핵당하여 권력의 자리에서 나떨어진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죄악에는 징벌이 따르기 마련이다. 정보정치, 공포통치가 부활되여 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가 깡그리 유린말살되는 파쑈란무장, 근로대중이 짐승취급을 당하는 현대판노예사회, 온갖 재난과 불행이 범람하는 수라장, 미래가 없는 암흑사회에 누가 미련을 품고있겠는가.

본사기자 전룡진

용납 못할 호전적망발

일본이 공화국에 대한 침략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최근시기에만도 일본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라는데 나타나 주제넘게도 조선반도유사시 남조선의 《요청》이 있거나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준다는것이 확증되면 《집단적자위권》을 발동해 공화국을 공격할수 있다고 떠들어댔다.

로골적으로 공화국을 공격하겠다는 일본의 용납 못할 호전적망발이다. 하지만 일본이 남조선의 《요청》이요, 일본의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요 뭐요 하며 이것을 턱대고 공화국을 공격하겠다고 하는것은 다 저들의 재침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간교한 구실에 불과한것이다.

과거 일제가 이루지 못한 아시아지배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것은 사무라이후예들의 변함없는 기도이며 그들은 지금까지 이를 위해 필사적으로 책동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이 감행하고있는 《반테로전》이 온 세계를 휩쓸었을 때에도 그러하였다. 당시 지구의 곳곳마다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반테로전》의 희생물이 되여 쓰러질 때 일본은 이를 두고 재침야망을 실현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였다. 하여 일본은 《테로위협에 대한 대응》을 안보정책의 전면에 내세우고 공격형의 군사전략을 세운데 기초하여 《자위대》를 해외군사작전을 주요사명으로 하는 완전한 공격형무력으로 전환시키고 그에 맞는 작전지휘체계를 완성하였다. 지금 일본은 언제든지 해외침략의 길에 나설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있는 상태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이전에는 감히 입밖에 내지 못하던 선제공격론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제창하고있다. 이것을 보면 일본이 얼마나 오만해지고 무분별해졌으며 저들의 군사적능력에 대한 과신에 미쳐돌아가고있는가를 짐작할수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의 침략정책에 편승하여 해외침략의 첫걸음을 조선에서 떼려고 하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이전 쏘련을 겨냥했던 북방중시로부터 서부중시로 바꾸고 혹가이도에 집중배치되였던 《자위대》무력을 조선과 가까운 서부일본지역에 재배치하여 항시적으로 조선반도를 노리고있다. 조상들의 본을 따서 조선을 해외침략의 전초기지로 타고앉을 야심을 품고있는 일본은 지금 각급 군사학교들에서 조선어를 의무과목으로 제정하는 한편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별의별 명목의 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이것은 과거 일제가 《동방의 맹주》로 군림하겠다며 침략의 칼을 벼리던 때를 련상케 한다.

간특하고 교활한 일본은 저들의 이 침략야망을 남조선괴뢰들을 리용하여 실현해보려고 하고있다. 괴뢰들이 미국은 물론하고 일본까지 등에 업고서라도 동족을 해치려는 개꿈을 꾸고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은 그러한 남조선괴뢰들을 공화국과의 대결에 내몰아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게 하고 그것을 구실로 조선반도재침의 길에 뛰여들려하고있다. 그런데로부터 일본군부우두머리들이 남조선에 뻔질나게 기여들어 괴뢰들과 반공화국대결모의판을 벌려놓고있다. 뿐만아니라 일본이 남조선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국방당국간 직통전화증설, 군사훈련참관, 항공기와 함선들의 호상방문과 같은 군사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해나가고있는것이다.

지금 이 시각도 일본은 조선반도에서 동족대결의 악순환이 계속되여 정세가 전쟁접경으로 치달아올라 그것이 전쟁으로 번져지기를 학수고대하고있다. 그런 일본이 검은 속심을 감추고 그 무슨 허구적인 《위협》타령을 불어대며 재침책동을 정당화, 합법화하려고 해도 저들의 범죄적목적은 감출수 없다.

조선반도유사시를 거론하며 《집단적자위권》의 명목밑에 《자위대》의 파견을 떠드는것은 조선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있는자들만이 할수 있는 망발이다. 그리고 일본이 남조선괴뢰들의 《요청》을 운운하는것은 과거 《거류민보호》를 구실로 조선을 침략하였던 일제의 침략수법그대로이다.

군국주의일본은 재침열에 들떠 심히 오산하고있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는 격으로 만일 일본이 무모하게 재침의 길에 나선다면 그 순간부터 멸망의 길이 따른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강경수

핵선제타격권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미국은 해마다 남조선에서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각종 형태의 핵전쟁연습인 합동군사연습들을 벌려놓고있다. 그중에서도 미친듯이 벌려놓고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핵전쟁연습책동은 간과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수만명의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이 동원되여 벌리고있는 핵전쟁연습소동은 미국과 괴뢰들이 지금까지 상투적으로 써오던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최근에는 가장 로골적이고 악랄하게 사상 최대규모에서 벌어지고있다.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년중 전쟁연습을 그칠새 없이 벌리고있지만 남조선에서처럼 방대한 병력을 동원하여 벌리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지금까지 미국은 수십년세월 이름을 바꾸어가며 합동군사연습이라는 명목밑에 북침핵전쟁연습을 벌려왔다. 1976년부터 해마다 진행되던 《팀 스피리트》북침전쟁연습이 오늘은 《키 리졸브》, 《독수리》로 그 이름을 바꾸고 수만명의 미제침략군이 참가하는 북침핵전쟁연습으로 그 규모를 확장하고 로골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지난해만 놓고보아도 미국은 북침핵전쟁연습에 3대전략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지역에 전개하고 살인악마의 무리로 악명을 떨친 륙해공군의 특공대작전집단과 강습상륙집단까지 공개적으로 들이밀었다. 그리고 미제침략군의 초대형핵항공모함타격집단을 비롯하여 지상, 해상, 공중핵타격수단들을 대량 투입하였다.

북침핵전쟁연습에서 호전광들은 핵전략폭격기와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미군의 전략핵타격수단들이 조선반도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하고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훈련을 반복하는 놀음까지 벌리였다. 거기에다 레이다감시망을 뚫고 후방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지하구조물을 파괴할수 있는 스텔스폭격기들이 핵전쟁연습을 앞두고 조선반도와 가까운 일본에 예고도 없이 날아들었다. 뿐만아니라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북침핵전쟁연습의 목적이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과 《평양점령》을 비롯하여 전략적요충지들을 불의에 점령하기 위한 기습상륙작전, 공화국의 핵타격수단들에 대한 선제타격작전 등의 실전가능성을 확정하는데 있다고 내놓고 광고하였다.

《힘의 만능론》에 사로잡혀 상대를 놀래우기만 하면 벌써 절반은 이긴것이라는 전쟁론까지 내돌리는 미호전광들이 실전도 아닌 《군사연습》에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는것은 그저 스쳐보낼 일이 아니다. 남의 문전앞에서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침략전쟁연습소동이 벌어지고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있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미국이 《B-1B》, 《B-2》, 《B-52》를 비롯한 핵전략폭격기들을 미국본토로부터 괌도로 이동배비하고 남조선에서 핵폭탄투하연습을 뻔질나게 벌리며 공화국에 대한 극히 로골적인 핵위협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 실정에서 그에 대한 가장 정당한 대응책은 오직 자위적인 핵억제력으로 맞서야 하는것이다. 핵전쟁에 미친 호전세력의 광기를 짓뭉개버릴 방도는 오직 그것하나뿐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자위적행사로서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괴뢰들은 자중, 자숙할 대신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걸고들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날강도적인 《제재결의》를 조작해내고 그 누구의 《숨통을 조이는 초강도제재》에 대해 떠들어대며 인민생활필수품들과 어린이들의 놀이감까지 제재항목으로 규정하였다.

장장 수십년간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하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적대시정책에 악랄하게 매달린 범죄자들이 도리여 저들의 망동을 정당화하면서 반공화국압살책동의 도수를 더욱 높이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있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이제라도 똑바로 보아야 하며 어리석게 공화국을 반대하는 정치경제적봉쇄와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책동에 계속 매여달리는 히스테리적인 광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핵선제타격권은 이제 더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본사기자 유선화



미림항공구락부

조선의 관광

환희의 순간은 하늘에서도

평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끄는것은 머리우에 펼쳐진 푸른 하늘에도 있습니다.

평양시 교외의 미림지구에 있는 미림항공구락부에서 관광용초경량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때부터 환희의 순간은 시작됩니다.

비행항로는 5월1일경기장, 옥류교, 주체사상탑,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두루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대동강을 따라 거슬러오르면서 아름다운 평양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보게 됩니다. 비행시간은 45분입니다.

미림항공구락부에서는 우와 같이 고정된 비행항로뿐만아니라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주문관광비행도 진행합니다. 비행기에는 조종사와 1~2명의 손님이 오릅니다. 자신이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고싶어하는 손님들은 련습기재에서 훈련을 받은 후 조종사와 자리를 바꾸어 하늘을 날아볼수 있습니다.

매해 초봄부터 시작되는 관광비행은 늦가을까지 이어집니다.



4월의 만경봉　　본사기자 권혁철

소나무의 푸름이 더욱 짙어지고 온갖 꽃 아름답게 피여나는 4월의 만경봉,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력사의 발자취가 력력히 어리여있는 만경봉은 따사로운 이 봄날 우리 인민에게 뜻깊은 그날의 사연을 더욱 깊이 새겨주는듯싶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782134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